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LONG & FOSTER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360호
Wednesday, August 13 2025 A

대도시 소요 사태 군부대 투입

'국내 소요 진압 대응 부대' 창설

지난 6월 LA에서 불법이민자 체포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주방위군이 파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 치안권을 회수하고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한 가운데, 국방부가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국내 소요 진압 대응 부대'(Domestic Civil Disturbance Quick Reaction Force) 창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가 확보한 국방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시위 등으로 혼란에 빠진 미국 도시에 이 부대를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대부분의 주방위군 사령부는 자체적인 신속 대응 부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추진하는 이 부대는 타주로의 신속 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단 주방위군 병력 600명을 상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상황 발생시 1시간 이내에 배치된다.

부대는 300명씩 2개 중대로 편제돼 알라배마와 애리조나 군부대에 분산 배치돼 각각 미시시피 강 동쪽과 서쪽 지역을 담당하게 된다.

만약 워싱턴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알라배마 주둔 부대가 출동하게 되는 것이다. 부대 편제가 완료될 경우 이들을 지원하는 수송기와 승무원이 24시간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국내 치안 유지 목적으로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법률로 보장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방부는 2027회계연도에 부대 창설과 유지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치안 유지를 위해 군대 동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었다.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 목이 눌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소요사태가 발생하자 주방위군이 투입됐으나, 주경계를 넘기가 힘드는 등, 다수의 헛점이 노출됐었다.

김옥채 기자

'중공 배후' 친팔 시위 주모자로 한인 지목

한인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급진 좌파 단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특히 그는 중국 공산당(중공)과 연계 의혹으로 조사 대상에 오른 미국인 사업가로부터 시위 주도 대가로 수만 달러의 돈을 받은 의혹까지 받고 있다.

뉴욕포스트, 예루살렘 포스트 등은 7일 '더 피플스 포럼(TPF)'의 디렉터로 활동하는 정성모(영어명 데이비드 정)씨가 상하이에서 활동중인 미국 출신 사업가 네빌 로이 싱햄으로부터 7만5000달러를 받았다고 전했다. 정씨에게 돈을 지원한 사업가 싱햄은 중국 상하이에 살면서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로 급진 좌파 및 반미 성향 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정씨가 속한 TPF는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운동 등을 지향하는 좌파 성향의 단체로, 극단적 색깔 때문에 의회가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한 곳이기도 하다.

매체들은 국세청(IRS) 자료를 인용해 정씨가 지난 2018년부터 싱햄으로부터 매년 연봉(6만4021달러)과 기타 활동 비용(9581달러) 등 약 7만5000달러의 돈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정씨가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납치한 다음 날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대규모 친팔 시위(2023년 10월8일)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또 정씨는 지난해 컬럼비아대학에서 열린 친팔 시위에도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씨는 시위대와 함께 캠퍼스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대학 직원 3명을 감금했으며, '미국에 죽음을' 등 과격 문구가 담긴 낙서를 캠퍼스 벽면 등에 남기기도 했다.

강한길 기자

이대통령-트럼프 25일 첫 정상회담

24~26일 실무방문 동포간담회 미정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오는 2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공식 실무 방문 형식이다. 의전과 공식 환영식 등 절차가 많은 국빈 방문과 달리 공식 실무 방문은 정상 간 실무 협의와 대화에 집중하는 형식이다.

공식 환영식은 생략되고, 방문단 규모도 간소화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5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았을 때도 이와 같은 형식이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3년 4월 첫 방미는 국빈 방문 형식이었다.

주미 대사관 측은 동포간담회 개최 여부에 대해 아직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포간담회 개최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 방미 당시 동포간담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당시에도 실무 방문 형식이었다.

하지만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규모 행사가 제한된 탓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했을 때에도 공식 실무 방문 형식이었으나 성대하게 동포간담회가 열렸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방미 일정도 실무 방문 형식으로 치러졌지만 역시 동포간담회가 진행됐었다.

단, 두 대통령은 실무방문 형식임에도 백악관 환영 만찬 등 국빈급 의전을 받았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지역 물가 빠르게 안정

CPI 워싱턴 2.0%, 미국평균 2.7%

워싱턴 지역 소비자 물가가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이 지난 1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메트로지역(Washington-Arlington-Alexandria, DC-VA-MD-WV)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전년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이는 지난 6월의 2.7%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폭 확대를 점쳤던 시장 예상치 2.8%를 밑돌았다. 하지만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3.1% 상승해 우려를 사고 있다.

근원소비자물가지수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를 뜻하며,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인플레이션 흐름을 예측하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로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상호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 압박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6월 장난감, 의류 등 수입재 가격이 상승한 데 이어, 7월에는 햄(3.7%), 토마토(3.3%), 어린이 의류(3.3%), 커피(2.2%) 등 일부 물품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김윤미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센터빌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한미동맹 의미 되새기는 기회"

U-SPECK 안보기관 견학 청년 15명 워싱턴 방문

유스펙 대표단이 안미영 회장이 베푼 환영행사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다.

한미동맹재단이 지원하는 한국 독립 평화안보연구회(U-SPECK, 이하 유스펙)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워싱턴 안보기관을 방문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겼다.

육.해.공사를 비롯해 숙명여대.경희대.서울대.중앙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2025 유스펙 대표단 15명은 신경수 한미동맹재단 부회장의 인솔 하에 10일부터 12일까지 워싱턴에 있는 주요 외교.안보기관을 방문 견학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실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유스펙 대표단은 이 기간 동안 한국전쟁참전 기념공원을 필두로 펜타곤, CSIS, 연방의사당, 주미한국대사관 등을 방문하고, 주요 관계자들로부터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을 곁들였다.

11일 오후에는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워싱턴지회 안미영 회장이 버지니아 레스턴에 있는 자택에서 대표단 환영 파티를 열었는 데, 이 자리에는 신경수 부회장을 비롯해 이동영 주미대사관 해군 무관, 송재성 한미자유연맹 총재, 김영란 워싱턴지역 숙명여대동문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치외교와 사회심리학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오시은(숙명여대2학년) 학생은 "워싱턴의 안보 기관을 방문하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며 유익함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대표단은 13일 뉴욕으로 이동해 UN 본부와 9/11 메모리얼 시티와 박물관 등을 방문 견학하고 국가안보와 평화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찾고, 16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김성한 기자

국적상실 신고제법만 있고 실효성 없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유 꺼려 한국 갈 때 한국여권 사용도 동포비자 가능 꼭 신고를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한인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번갈아 사용하다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 법무부 측은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경우 '여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시민권을 취득한 이모 (38·여)씨는 두 달 전 한국 인천 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했다. 시스템상 해외 출국자였던 이씨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해 수월하게 입국 했다. 그런데 이씨는 한 달 뒤 미국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문제가 발생했다. 이씨는 "미국 여권으로 입국한 기록이 없다며 조사를 받았다"면서 "출입국 관리소 측은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상실된다며 국적상실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국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법 제13조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여권의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당사자가 자발적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한국정부는 관련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진 신고 전까지는 한국 부동산, 은행계좌,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에도 한국 국적자로 취급된다.

이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도 한국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어서다. 국적상실 신고를 할 경우 60일 이내 외국인 토지취득 및 보유 신고 등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한국 국적자가 받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있다.

2년 전 시민권을 취득한 김모(47)씨도 한국 출입국시스템상 '해외 장기출국자'다. 김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도 주민등록 말소 등을 우려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출발 항공 여권 정보와 입국심사 여권 정보가 다를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한다. 다만 시민권자가 한국 여권을 사용해도 곧바로 '여권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고 국적상실 신고를 유도한다. 하지만 이를 반복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1회 당 5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국적상실 신고를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 자발적 국적상실 신고를 필요한 이유다.

김형재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에린' 첫 허리케인 워싱턴 방향으로 북상

열대성 태풍 '에린'이 올해 첫 대서양 지역 허리케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기상당국은 에린이 이번 주말 3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동부해안 지역을 따라 북상해 워싱턴 지역은 물론 캐나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에린은 이번 주말 카리브해를 강타하고 계속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린의 중심기압은 1004hPa, 최대 풍속은 20m/s으로 측정된다.

주정부 아니라서 치안권 뺏겼다, DC 시장 불만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이 "주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치안권을 빼앗고 주방위군을 파견하는 등, 전례없는 불안정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워싱턴DC가 주정부로 승격돼야 이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서 "우리는 51번째 주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DC는 인구 70만명에 이르지만, 주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상하원 의석 배출 권한도 없다.

3형제 무장강도 모두 중형 선고돼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화이트' 3형제 무장강도들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했다.
안드레 조엘 화이트 주니어 등 화이트 3형제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일대 소매업소 7곳에서 무장강도 행각을 일삼았다.
이들은 주로 담배전문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권총으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수백 달러에서 수만달러 상당의 담배, 현금 등을 강탈해 달아났다. 3형제는 각각 21년, 14년, 10.5년형을 선고받았다.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 VA 잔류 가능성 남아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의 텍사스 이전이 확정됐으나, 버지니아 지역 풀뿌리 단체를 중심으로 잔류를 위한 강력한 로비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2026회계연도 예산안 부가 법안 통과에 따라 디스커버리호가 18개월 내 텍사스로 이전해야 하지만, 연방예산을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에 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현재 하원 본회의에 계류돼 있어, 9월 초 의회 개원과 동시에 표대결을 앞두고 있다.

포토맥강 '뜨거운 가뭄' 으로 식수 공급 위기

포토맥강을 이용하는 지역연합체 포토맥강상수원보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뜨거운 가뭄'으로 인해 포토맥강 담수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99년 포토맥강 인근의 강수량은 현재보다 최대 16% 증가하지만, 기온 상승으로 인해 담수량은 현재보다 최대 49% 줄어들 수 있다. 강수량이 많아져도 고온으로 인해 증발량에 더욱 늘어 담수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날씨 (°F)

8월 13일(수) 87-74

14일(목)	91-75	17일(일)	94-73
15일(금)	91-73	18일(월)	92-72
16일(토)	91-72	19일(화)	81-67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12001 Rt 50, 2nd Fl, Fairfax, VA 22033 (T.703-449-7629)

RENT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RENT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1석 5조 통합보험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Transamerica, Athene, Allianz,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Accordia Life, Columbus Life Insurance Company,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ACA, LSW, Aetna, National Western Life, AXA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지니스 융자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Medicare)
MDRT The Premier Association of Financial Professionals
로리 문 | Cell. 703-895-7648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버지니아 (리치몬드)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한인 2천명 투표하면 당선된다"

문일룡 교육위원, 수퍼바이저 선거 후원회 결성돼

왼쪽부터 스티브 리, 문일룡, 황원균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브래덕 디스트릭)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문일룡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을 위한 후원회가 결성돼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버지니아 연방하원 제11지구 민주당 후보로 나선 제임스 워킨쇼 현 수퍼바이저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그가 사퇴하게 되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문 위원은 "지난 4월 말, 제리 코널리 의원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워킨쇼 수퍼바이저가 도전의 사를 내비쳤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 브래덕 디스트릭 수퍼바이저 선거 출마를 두고 고민해왔다"면서 "과연 이 일을 좋아할 수 있을지, 수퍼바이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승리 가능성과 내 나이까지 포함해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다가 오는 것은 이번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인 후세대를 위해 출마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황원균 후원회장은 "문 위원이 2009년에도 브래덕 디스트릭 수퍼바이저 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본선에서 단 89표 차이로 석패해 아쉬웠다"면서 "한인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매우 간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일룡 위원은 "브래덕 디스트릭의 한인 유권자 3500명 중 2천명 정도만 민주당 예비경선에 참여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며 "2009년 예비경선 투표자의 ⅓ 정도가 한인이었고, 작년 대선에서도 한인 유권자 3500여명 중 2천여명이 투표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한인 분들이 참여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9월말이나 10월에 있을 민주당 예비경선부터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여러 후보자들이 거론되고 있어 쉽지 않은 경쟁이 예상된다"면서 많은 후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문 위원은 "수퍼바이저가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만큼, 한인들의 고충과 민원에 귀를 열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확한 보궐선거 일정은 카운티 순회법원 절차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11월이나 12월로 예상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출신인 고 제리 코넬리 연방하원의원의 활약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수퍼바이저의 정치적 위상은 주의원을 능가하며 권한 또한 막강하기 때문에 한인 수퍼바이저의 탄생은 한인 커뮤니티의 질적 및 양적 성장을 견인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후원 Moon For Braddock District
P.O. Box 10412 Burke, VA, 22015

김윤미 기자

워싱턴DC 자치법 740조란 무엇인가?

트럼프, 범죄 전쟁 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 경찰에 대한 연방 통제권을 인수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DC 섹션 740을 발동하여 주방위군을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워싱턴 DC 자치법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 문제에 대한 통제"을 원함에 따라 제정됐다.

자치법 740조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MPD)을 연방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한 대통령은 시장에게 경찰력을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대통령이 연방 상.하원과 DC의회에게 경찰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 동안 필요한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MPD에 대한 통제권은 48시간 밖에 없다.

740조에는 대통령의 통제권은 비상사태가 종료되거나 30일이 지나면 만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범죄로 인해 워싱턴DC에 공공 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했는 데, 그는 FBI, 알코올.담배.화기.폭발물 관리국(ABF), 마약단속국(DEA) 등 연방기관에 거리 순찰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수도 워싱턴DC는 폭력적인 갱단과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 방탕한 젊은이들로 가득한 무리, 마약에 취한 미치광이들, 노숙자들에게 점령당했다"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MPD를 연방화한 것은 "불안하고, 전례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김성한 기자

DC 로건서클서 총격…남성 1명 사망

경찰, 용의자 추적 중

11일 저녁 워싱턴DC 중심가에 위치한 로건서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남성 1명이 숨졌다고 경찰이 밝혔다.

메트로폴리탄 경찰(MPD)에 따르면, 이 오후 7시경 총격 사건은 1200번지 12가에서 일어났는 데, 여러 발의 총을 맞은 남성은 의료진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즉시 사망선고를 받았다.

경찰은 12일 아침 사망한 피해자는 워싱턴DC 출신의 33세 타이마크 웰스라고 발표했다. 한 인근 주민은 처음에는 폭죽 소리인 줄 알았는 데, 연속적인 빵, 빵 소리를 듣고 총격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성인 3명중 1명, '가계 재정 악화'

워싱턴을 비롯한 전국의 성인 3명 중 1명은 가계 재정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야후 파이낸스/마리스트가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 성인 33%가 지난 1년 동안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고, 40%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7% 상황이 나아졌다. X세대의 10명 중 4명, 베이비붐 세대의 35%에 달하는 고령층과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약 29%가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답했다.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의 가구 절반인 47%가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했고, 지난 1년 동안 재정 상황이 좋아졌다고 답한 남성은 36%로 여성 응답자 18%보다 두 배나 많았다.

응답자 중 45%는 지역 생활비가 매우 저렴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고, 44%는 적당하고 답했다.

김성한 기자

원로목사회 월례예배 '신선한 기름부음'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회장 이석해 목사) 8월 기도회가 12일, 버지니아 스프링필드 소재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담임목사 이성자)에서 열렸다. 이날 설교에서 이성자 목사는 '신선한 기름부음'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사명을 회복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달 원로목사회 예배는 9월11일(화) 오전 11시, 열린문교회(담임목사 김요셉)에서 열린다. 김윤미 기자

프리미엄석으로 좁은 이코노미 1인치 더 줄인다

대한항공 '보잉777' 11대 개조
17.1인치로, 좌석 '3·4·3' 배열
아시아나 합병에 고객 불이익
항공사 "체감공간 큰 차이 없어"

대한항공이 오는 9월 일부 기종에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면서 기존 이코노미석 배열을 3-3-3 시스템에서 3-4-3 시스템으로 변경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1열당 좌석이 기존 9석에서 10석으로 늘어 좌석당 너비가 18.1인치(약 45.9㎝)에서 17.1인치(약 43.4㎝)로 1인치(약 2.5㎝) 좁아지면서다.

대한항공은 지난 5일 보유한 여객기 138대 중 B777-300ER 기종 11대에 9월부터 프리미엄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등석(8석)-비즈니스석(56석)-이코노미석(227석)의 총 291석이던 좌석을 비즈니스석(40석)-프리미엄석(40석)-이코노미석(248석)의 328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코노미석보다 1.5배 넓고 운임도 약 10% 더 비싼 프리미엄석을 확보하면서, 이코노미석도 21석 늘렸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석 너비가 1인치씩 줄었다.

이번 개편에 대해 대한항공은 글로벌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 주요 25개 글로벌 항공사 중 18개사가 보잉777-300ER 기종에 이코노미석 3-4-3 배열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7개사는 3-3-3 배열이다. 대한항공 측은 개편 후 새 좌석의 시트 두께가 더 얇아져 체감 공간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코노미석이 좁아졌는데 가격은 왜 그대로냐" 등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해외에서도 '이코노미석 공간 축소'는 논란이다. 대한항공보다 먼저 17인치 이코노미석을 도입한 글로벌 항공사들에서 이용객 불만이 제기됐다. 2022년 미국의 항공 승객 권익단체 '플라이어스라이츠(FlyersRights)'는 연방항공청(FAA)에 '최소 좌석 크기' 규정을 정하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2023년 법원은 일단 규정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소비자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으로 국내 대형항공사(FSC)가 1개가 되는 만큼 향후 17인치 이코노미석이 '표준'으로 자리 잡을까 우려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인천~LA 등 양사가 취항 중인 40개 주요 노선에서 1개사 운수권을 10년간 반납하고, 해당 노선에서 좌석 간격·무료 수하물 등 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 때문에 이코노미석 개조 기종은 해당 40개 노선을 피해 투입될 거란 해석이 나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조치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뉴욕 변호사 시험 도중 한인 여성 심정지 실신

감독관 응급조치 지연 논란
고펀드미 통해 치료비 모금

지난달 30일 뉴욕주에서 변호사 시험을 보던 중 심정지로 쓰러진 한인 여성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온라인 모금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일 개설된 고펀드미에 따르면, 시애틀 출신 메리 제인 정(사진)씨는 뉴욕주 롱아일랜드 호프스트라대에서 열린 2025년 변호사 시험 오전 세션 중 갑자기 쓰러졌다. 모금 개설자 애네트 로페즈씨는 정씨가 쓰러진 직후 주변 응시생들이 시험 감독관에게 구조를 요청했으나 시험이 중단되지 않아 의료진 진입이 지연됐다고 전했다.

정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의식을 되찾아 회복 중이다. 그는 11일 고펀드미를 통해 "기도해주고 기부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다행히 회복 중이며 제세동기 삽입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로페즈씨는 "메리 제인은 첫 학기부터 변호사 시험 준비 기간까지 주변을 꾸준히 챙기며 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뒷받침해온 든든한 기둥이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씨는 포드햄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시험 응시생으로, 수상 경력을 갖춘 전직 패션 디자이너이자 작가다.

정윤재 기자

흥사단 옛 단소, 복원 현장 공개 지난 9일 흥사단 옛 단소에서 복원 사업 현장 공개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3년 1월 대한민국 국가보훈부가 매입한 이 건물의 복원 계획과 향후 활용 방안, 그리고 오는 20일 온라인으로 열릴 조건부 용도허가(CUP) 공청회에 대해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진 기자

재정난에 반려동물 포기 급증

지역 동물보호소 초만원 사태
사료비·진료비 등 양육비 급증

전국의 동물 보호소들이 기록적인 수준의 반려동물 포기 사태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인에 의한 반려동물 포기(owner surrender)' 급증은 국내 가계 전반의 재정난을 반영하는 경제적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 CNN 보도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샬럿-맥클렌버그 동물보호국은 올해 들어 반려동물 포기 건수가 전년 대비 무려 43%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시카고 동물보호국 역시 올해 하루 평균 56마리의 동물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마리나 증가한 수치다.

이번 반려동물 포기 급증의 배경에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게 자리한다. 동물의 진료비, 사료비, 여행 및 물품 구입 등 양육 비용은 상승했는데, 주인의 실업, 부채, 인플레이션 등 거시 경제 위기가 맞물리면서 반려동물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정이 증가한 것이다.

시카고 동물보호국의 올해 상반기 집계에 따르면 전체 포기의 약 7.2%는 경제적인 이유, 14%가 주거 불안정(퇴거, 임대료 상승, 반려동물 금지 규정 등), 60% 이상이 가족·이웃 등 비공식 경로 입양 후 지원 부족, 10%가량이 주인 사망 또는 건강 악화로 인한 포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사유들은 실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국 대부분의 보호소가 인력 부족과 예산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과밀 수용과 장기 체류 동물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90% 이상의 동물을 살리는 '노킬 보호소'들도 점차 수용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를 팬데믹 시기 대규모 반려동물 입양 붐의 후속 현상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고립을 해소하고자 입양했던 반려동물들이, 일상 복귀 이후 사회화 부족, 행동 문제, 예기치 못한 책임감 등으로 인해 보호소로 되돌아 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인성 기자

미국 청년들 카드 빚 수렁

2분기 연체율 10% 근접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미국 청년들의 연체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뉴욕 연은 연구원들은 최근 40세 미만 미국인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다"며 이러한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8~29세 미국인의 신용카드 잔액 중 약 10%가 2분기에 90일 이상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 미국인의 심각한 연체 전환율은 2023년 이후 약 10%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그 이전에 이 비율이 10%를 넘어선 마지막 시기는 2010년이었다.

뉴욕 연은의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22~27세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은 팬데믹 이후 최저치에서 급등했으며, 6월 기준 전국 평균보다 0.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SJ, "트럼프, 시진핑 국가자본주의 벤치마킹" 주장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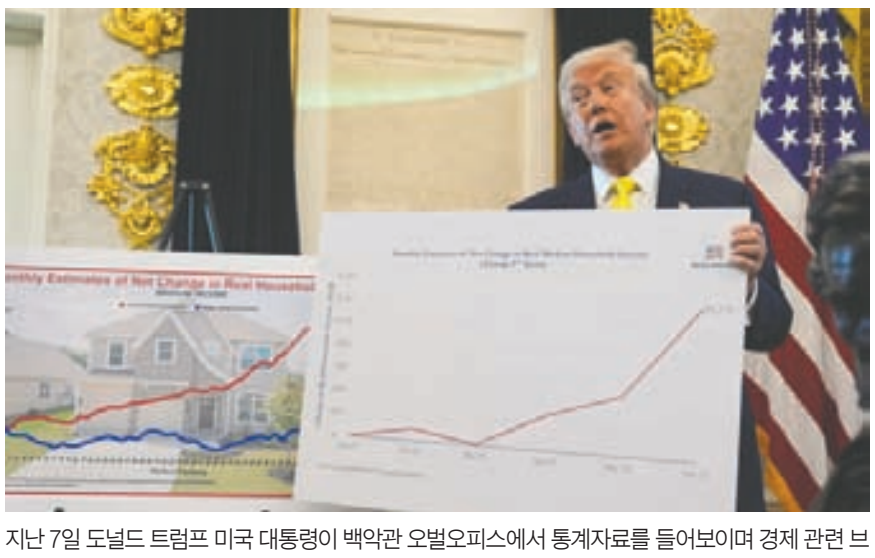
2000년 3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자유화할수록 미국 경제를 닮아갈 것이고, 궁극적으로 민주화가 될 거란 생각이다. 이런 기대 속에 미국은 중국이 이듬해 WTO에 가입하는 걸 적극 지원했다.

25년이 지난 현재 클린턴을 비롯한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통념은 180도 뒤집혔다. 중국이 미국을 닮을 거란 전망은 그들만의 '희망 회로' 였을 뿐 실제론 미국 자본주의가 중국을 닮아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보다 국가가 기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건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WSJ의 분석이다.

WSJ가 든 '트럼프식 국가자본주의' 사례는 다양하다. 중국 연계 의혹을 이유로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사임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판매한 반도체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기로 한 것 등이다. US스틸의 인수를 허용하면서 일본제철로부터 '황금주'(주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 행사 가능한 주식) 확보한 것과 상호관세로 세계 각국을 위협해 1조 5000억 달러(약 2090조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것도 꼽혔다.

지난달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에 부임한 16개국 신임 대사들을 상대로 환영 연설을 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트럼프가 보인 행위는 미국이 구현해 온 자유 시장 정신과는 차이가 크다는 것이 WSJ의 평가다. 국가가 민간 기업의 결정을 주도하는 측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혼합한 국가 자본주의에 가깝다. 이런 체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곳이 중국이다.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첨가한 자신들의 혼합형 사회주의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정의해 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발전시켜 서방 시장경제 체제의 대안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통계자료를 들어보이며 경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WSJ는 중국 사례에 빗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미국 특색 국가자본주의'라고 정의했다. 트럼프가 이른바 '엡스타인 의혹'을 보도한 WSJ와 소유주인 루퍼트 머독을 상대로 100억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던 것도 지난 2020년 중국 금융을 전당포 영업에 비유한 마윈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와 알리바바 그룹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시진핑과 닮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에 거침없는 보복을 벌인다는 점에서다.

트럼프의 '벤치마킹'엔 고속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다. 중국이 공산당 주도로 '광속 건설 중인 거대 공학 국가'라면 미국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등 이른바 '민주주의의 비효율에 발목 잡힌 국가'라는 게 트럼프의 인식이다. 법률가 중심의 복잡한 절차에 발목이 잡힌 데다 자유시장주의가 미국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겨 산업 기반을 약화하면서 중국에 추월을 당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 국가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게 트럼프 생각이다.

이승호 기자

머스크 "어려운 결정 했다…수퍼컴 개발팀 '도조' 종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율주행용 자체 개발 수퍼컴퓨터 '도조'(Dojo)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팀 해체를 공식 확인했다.

머스크는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에 "모든 경로가 AI6로 수렴된다는 것이 명확해진 순간 도조를 종료하고 어려운 인사 결정을 내려야 했다"며 "'도조2'는 이제 진화적으로 막다른 길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조3'는 아마도 단일 보드에 다수의 AI6 시스템온칩(SoC)을 탑재한 형태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조 시스템은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D시리즈 칩 기반의 수퍼컴퓨터로,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인 오토파일럿과 FSD(Full Self-Driving),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지원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된다.

테슬라는 첫 번째 도조 수퍼컴퓨터를 가동하며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자체 제작한 D1 칩을 혼합해 사용했다. 테슬라는 2세대 D2 칩을 기반으로 두 번째 도조 시설(도조2)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발 중이던 D2 칩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등 도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대신 TSMC와 삼성에서 각각 생산하는 AI5, AI6 칩에 주력하기로 했다.

AI5 칩은 주로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FSD 구동을 위해, AI6는 자율주행 및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율 기능과 대규모 AI 학습을 모두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이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상당히 다른 두 개 AI 칩 설계를 동시에 확장하며 자원을 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AI5와 AI6, 이후 칩들은 추론에 훌륭하고 학습에도 좋은 성능을 낼 것이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7일 소식통을 인용해 도조 팀을 이끌던 피터 배넌이 회사를 떠나기로 했으며, 머스크가 이 팀의 폐지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테슬라는 컴퓨팅 분야의 엔비디아와 AMD, 칩 제조 분야의 삼성전자 등 외부 협력사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계획으로, 이번 결정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전략에 있어서 주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한영혜 기자

아마존, 네 번째 인터넷위성 발사

벌써 100기 돌파

제프 베이조스가 창업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인터넷 위성 서비스 사업 '프로젝트 카이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마존은 11일 오전 8시 35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카이퍼 위성 24기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발사는 지난달에 이어 네 번째로,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사용됐다.

스페이스X는 아마존의 위성 24기가 전부 계획대로 배치됐다고 밝혔다. 당초 발사는 7일로 예정됐으나 기상 악화로 연기됐다. 이번 발사로 카이퍼 위성은 총 102기에 이르며 100기를 넘어섰다. 아마존은 지난 4월과 6월 각각 27기씩, 지난달에는 24기를 발사했다.

아마존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부여한 기한에 맞추기 위해 발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FCC 계약에 따르면 아마존은 내년 7월 말까지 약 1600기, 2029년 7월까지 총 3236기를 저궤도에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틀라스 V로켓을 보유한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ULA)와 스페이스X 모두의 발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약 8000기의 위성을 발사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 고객은 500만 명에 달한다.

한영혜 기자

"中, 기업들에 엔비디아 H20 칩 사용 제한 지침 내려"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H20 칩 사용을 제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자국 기업들에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의해 한때 수출이 통제됐다가 최근 공급 재개가 결정된 H20 칩에 대한 보안 우려를 제기하며 엔비디아 측에 증명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몇 주 동안 다수 기업에 H20 칩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특히 국영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정부 또는 국가 안보 관련 업무에서 H20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지난달 16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베이징 만다린 오리엔탈 첸먼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가람 기자

소식통 중 한 명은 이 지침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다만, AMD의 MI308 칩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의 이번 지침은 엔비디아와 AMD가 대(對)중국 판매 수익의 15%를 미 연방정부에 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알려졌다.

중국 당국 통지문에는 '왜 H20을 중국산 대안 대신 구입하는지', '중국산 대안이 있어도 꼭 필요한 선택인지', 'H20 칩에서 보안 문제가 발견된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도 포함돼 있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 칩 사용 제한 지침은 중국 당국이 과거 테슬라 차량과 애플 아이폰을 일부 기관과 지역에서 제한한 방식과 유사하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나아가 엔비디아와 AMD에 대한 지침이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H20의 수출을 왜 다시 허용했는지와 관련한 미 정부의 설명과 관련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복수의 미국 고위 관리들은 정책 선회가 미·중 무역합의의 일환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중국 당국은 H20 공급 재개가 양국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는 중국 당국이 애초 H20 수출 허용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이 아닌 중국 수출용으로 낮은 사양으로 설계된 H20에 대해 중국 당국은 관영언론을 통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중국 중앙TV(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지난 10일 "대(對)중국 수출이 여전히 통제된 H100과 비교하면 H20의 전체 컴퓨팅 파워(정보 처리 능력)는 20%에 불과하다"면서 "어떤 칩이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최첨단도 아니며 나아가 안전하지도 않다면 소비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사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엔비디아 측을 소환해 백도어 안전 리스크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측은 관련 의혹을 재차 부인한 바 있다.

엔비디아 최고보안책임자 데이비드 리버는 지난 5일(현지시간) 블로그에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에는 '킬 스위치'나 '백도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킬 스위치(kill switch)'는 원격으로 칩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이고, '백도어'는 정부나 해커가 기기 내부에 숨겨진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원격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다.

문상혁 기자

미·중 사이 균형외교 안 통했다, 인도 고립위기

중국과 영토분쟁 뒤 관계 냉랭
미국 손잡았지만 50% 관세 타격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구사해온 인도가 고립 위기에 처했다.

중국과 같은 '인구 대국' 인도는 값싼 제조업과 빠른 인프라 확충, 세계시장 진출까지 일찍이 중국을 경제적 롤모델로 삼았다. 두 나라는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와 원자력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하는 파트너였다. 그러나 2020년 히말라야 국경에서 발생한 영토분쟁으로 관계는 냉각됐다.

이후 인도는 미국과 손잡았다. 미국의 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의체 쿼드(Quad)의 중추로 거듭났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미국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농업·유제품 시장 개방 거부를 문제 삼으며 인도산 의류·보석·철강 등에 최고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 문을 열지 않는 인도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경제는 죽었다"는 막말까지 던졌다. 인도 현지에선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아마존, 애플 등 미국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했다.

그렇다고 또다시 중국과 우호관계로 선회하기엔 여건이 녹록지 않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를 연장하면서 미·중 간 미묘한 관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 "시진핑과 트럼프 구애 실패 후 반성하는 모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 두 초강대국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던 인도의 힘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짚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트럼프가 미국·러시아·중국의 공조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면서 인도는 설 자리를 잃었다"며 "미국과의 외교 도박에 실패한 인도는 외교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지혜 기자

최소 30캐럿 다이아… 호날두의 청혼반지

8년 교제 끝 약혼… 최대 70억원 추정

마흔 살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가 장가를 간다.

12일(한국시간) ESPN 등 스포츠 매체들은 "호날두와 조르지나 로드리게스(31)가 8년 교제 끝에 약혼했다"고 전했다. 조르지나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 사진(위 사진)을 공개하며 프러포즈 승낙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로드리게스의 약혼반지 다이아몬드가 최소 30캐럿 이상이고, 반지값은 최소 200만 달러(27억8500만원)에서 최대 500만 달러(69억6250만원) 사이로 추정했다.

로드리게스 호날두

두 사람은 2016년 스페인 마드리드의 구찌 매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 당시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었고 로드리게스는 시급 10파운드(1만6000원)를 받으며 구찌 매장에서 일했다. 커플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10년 가까이 동거해왔고 2017년과 2022년 두 딸을 얻었다.

과거 '호날두의 여자친구'로 불렸던 로드리게스는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 6800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사업가가 됐다.

박린 기자

"포켓몬만 챙기고 햄버거 버렸다" 항의 폭발

일본 맥도날드가 어린이 세트 메뉴 '해피밀' 구매 시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장난감과 트레이딩 카드를 증정하는 행사를 열었다가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일부 리셀러들이 사은품만 챙기고 음식을 길거리에 버려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일본 맥도날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기간 일부 리셀러들의 대량 구매 이후 매장 주변 혼잡 및 햄버거 방치·폐기 등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과했다.

맥도날드 측은 "평소 맥도날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더해 점포에서 일하는 크루와 인근 주민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 것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맥도날드는 해피밀을 전매 목적으로 구입이나 식품의 방치 및 폐기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황은 우리가 오랜 세월 소중히 해온 '어린이와 가족에게 즐거운 식(食) 체험을 제공한다'는 이념에 명확하게 반하고 있다"며 "당사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피밀 판매 개수를 제한하고 대량 구입 금지, 행사 기간 매장 운영 방해 행위 고객 공식 앱 탈퇴 처리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장구슬 기자

파리서 임산부 노숙자에 고의로 소변본 남성들

프랑스 파리에서 20대 남성 두 명이 임신한 노숙자와 그의 두 딸에게 소변을 봐 수사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1일 일간 르파리지앵은 인권단체 '유토피아56파리'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1시께 20대 남성 두 명이 파리 시청 앞 광장에서 노숙하던 한 임신한 여성과 그의 6세, 14개월 딸들에게 소변을 봤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들은 지난주 초부터 피난처를 요청하기 위해 다른 250여명의 노숙자와 함께 시청 광장에서 지냈다.

남성들의 소변에 이들 가족의 이불과 다른 물품이 젖었고, 6세 아이의 얼굴에도 소변이 튀었다고 단체는 고발했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 2명 중 한 명을 체포했으며 집단 폭행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정시내 기자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 MD 21228

뜨거운 여름, 뜨겁게 할인!

기간: 7.30 - 8.27.2025 **조건:** 기간내 주문 & 8월 내 설치

렌탈료 최대 5개월 할인

렌탈 다운페이
$100 면제

일시불도
최대 **25% OFF**

NEW

업계 최초
스팀 100 바리스타
정수기 탄생!

BRAND STORE 쿠쿠 AS 공식 수리처

-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e, VA 20121 Tel. 571-321-7776
- **롯데마트 Ellicott City** Tel. 410-750-8011
- **H Mart Annandale** Tel. 240-595-2257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2T/G, CP-P011T/G, CP-QN1401SW, CP-KN501HW, CP-KN501S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CP-FR602SW, CP-ACR1620SW, CP-ABNC100, CP-WN601HW, CP-WN601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일 반 제 품 CP-ADR051UW, CP-MN031W/WH, CAC-C1020FW, CAC-AA0910FW, CBT-IS1131REW/RRW, CBT-I1030RW, CWS-AO201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렌탈료 할인은 타사보상, 제품 모델별, 소유권 도래 등 조건별로 상이하니 쿠쿠에 문의/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CUCKOO

CUCKOORENTAL.COM
888 . 700 . 0425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김건희 구속…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

"결혼 전 문제 계속 거론 속상하다" 최후진술

영장심사 뒤 법원 나서는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 여사 영장심사는 오전 10시10분에 시작해 오후 2시35분쯤 끝났다. 이후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수감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샤넬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는 듯 했지만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개시 42일 만에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4시간25분간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심사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변호인들에 소명을 맡긴 채 침묵했다. 특검팀이 파워포인트(PPT) 화면을 띄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땐 눈을 질끈 감았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야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어 속상하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는 짧은 입장을 남겼다.

이날 심사엔 김 여사 측에서 최지우·채명성·유정화 변호사가,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한문혁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8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특검팀에 맞서 미리 준비한 80여 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활용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의 방어 전략에 균열이 생긴 건 특검팀이 예고 없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를 꺼내 들면서다. 자수서는 2022년 이 회장이 김 여사 측에 6000만원 상당의 반 클리프 에펠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자수서에는 또 "대선 직후 취임 축하용 선물로 아크로비스타 식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 직접 목걸이를 건넸다. 첫 만남 땐 조찬기도회 참석을 요청했고, 이후 다시 만나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청탁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 이를 다시 이 회장에게 반납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논의가 재점화하자 특검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반납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 여사 스스로 목걸이 선물이 뇌물이란 점을 인지하고 있었단 의미이기도 하다.

뇌물 공여자가 스스로 청탁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수수자로 지목된 김 여사는 궁지에 몰렸다. "목걸이는 2010년 홍콩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라는 진술이 거짓말이란 사실이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 도중 들통났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김 여사 측에 건넸다고 인정한 이 목걸이는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모습이 공개되며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고, 특검 수사 결과 이 목걸이의 구매자가 이 회장의 비서실장이란 점이 드러났다. 특검 수사가 확대되자 이 회장은 선제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목걸이 진품과 함께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장모 자택에서 발견한 가품 목걸이를 동시에 꺼내 들기도 했다. 특검팀이 공개한 진품 목걸이는 2022년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선물한 이후 돌려받은 제품이다. 이와 함께 공개된 가품 목걸이는 김 여사가 진품을 서희건설 측에 되돌려준 이후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는 가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직후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은 진품 실물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며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목걸이를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음에도 (김 여사는) 수사 과정에서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했고, 가품이 인천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선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서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거짓 진술로 일관했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가품을 구입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점까지 드러난 셈이다. 증거인멸 가능성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최우선 기준이란 점에서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는 김 여사 구속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심문을 진행한 정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여사를 지목해 "목걸이를 받은 것이 사실이냐"며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했다. 목걸이 수수 여부는 정 부장판사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여사에게 물은 유일한 질문이기도 하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25분 만인 오후 2시 35분쯤 끝났다. 김 여사는 영장 심사가 끝난 뒤 오후 3시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남부구치소 측은 대기하던 김 여사를 곧장 수용실로 인치했다. 특검팀은 최장 20일간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바쉐론·반클리프·까르띠에… 명품이 김건희 발목 잡았다

"바쉐론 시계 전달" 로봇개 업자 진술
특검, 김 뇌물혐의 수사 탄력 받을 듯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모든 명품
별도 공여자 있는지 수사 확대키로

반클리프·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샤넬백·디올백….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명품 수수 의혹들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명품 수사를 확대하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서모 전 로봇개 업체 대표 등 공여자의 자백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명품 의혹이 김 여사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여사 명품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인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때였다. 김 여사는 같은 해 6월 29일 현지 교민 만찬 간담회장에 문제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스노우 플레이크 펜던트 목걸이를 목에 걸고 나왔다.

나토 순방 당시 15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 브로치를 착용한 모습도 공개됐다. 이에 귀국 후인 같은 해 8월 말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착용한 3개 명품을 신고 대상인 500만원 이상 귀금속임에도 대선후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그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3년 만에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 서희건설 회장이 "같은 해 3월 9일 대선 직후 구매해 김 여사에 선물했다"고 자수함에 따라 특검팀은 까르띠에 팔찌, 티파니 브로치 역시 별도 공여자가 있는지 뇌물 혐의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같은 해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통해 62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를 청탁과 함께 받았다는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해당 의혹은 특검팀의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공여자인 윤영호(48·구속)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학자 총재의 뜻에 따라 청탁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이 물건들은 실물을 찾지 못해 최종 종착지가 김 여사인지 불분명하다. 전씨는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명품을 교환하라고 한 뒤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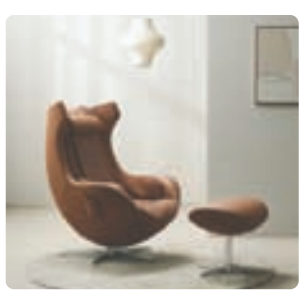
특검팀은 하지만 전씨 등의 아크로비스타 출입기록 등을 토대로 김 여사, 전씨, 유 전 행정관이 말을 맞췄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찬규·손성배·정진호 기자

더운 날씨에 시원한 세라젬 Summer Special 놓치지 마세요! CERAGEM

- 대한민국 식약처, 미국 FDA, 유럽 CE로 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기 기술력
- 척추 길이, 굴곡도, 하중 인식으로 사용자 체형측정 기능 (특허)
- 내부 발열 도자가 사용자별 척추라인을 따라 업 다운 밀착 마사지 효과 제공 (특허)
-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치료, 퇴행성 협착증 치료 도움
- 척추 부위에 집중적으로 온열(최고 149°F)과 압박 자극을 제공하여 척추 교정에 도움
- 척추 마디마디를 시원하게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 근육통 완화에 효능, 효과
- 복부 온열 LED 도자로 생리통 치료에 도움(V7 모델)

- 척추 굴곡도를 닮은 프리미엄 SL 프레임
- 원하는 밀착감 경험 3단계 어깨 높이 조절
- 마사지 효과를 높이는 릴렉스 온열 케어 (최고 113°F)
- 편리함과 편안함을 더한 145°F 전동 리클라이닝
- 척추라인을 따라 섬세한 마사지
- 최대 140°F 온열과 섬세한 진동 복부 온열 진동 도자
- 휴식의 몰입감을 높이는 블루투스 스피커
- 지압, 주무름, 두드림, 복합, 에어백 골반, 허벅지 마사지



세라젬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K- 마켓 안에 위치)
무료 체험 가능
무이자 할부 가능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201
Annandale, VA 22003

버스가 필요할땐?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한스 동부 로컬 투어

8명이상 출발가능 미리 예약 하세요!

뉴욕 1박2일 $399
10/2 출발가능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브루클린 3박4일 수요일 출발 $899
9/3(수), 9/24(수) 출발확정

추석 연휴 특선 버스 투어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목요일 출발 $650
10/6(월)-10/8(수) 출발확정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월요일 출발 $1,350
10/6(월)-10/11(토) 출발가능
9/29 출발가능

3명이상 출발가능 당일투어
워싱턴 DC $100
루레이동굴 $125

한스 노동절 특선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시티 투어
뉴욕 당일 투어
8/30(토) $199(점심식사 포함)

미국 사이드 숙박 (여권 불필요)
천섬, 미국 나이아가라 & 레치워스 2박3일
8/30(토)-9/1(월) $650

캐나다 사이드 숙박
캐나다 나이아가라 1박2일 8/31(일)-9/1(월) $425

NEW 한스 골프 투어

터키 안탈리아 골프 베케이션
& 고대도시 페르게와 이스탄불 투어
2025년 11/9(일)-11/16(일)
7박8일 $3,590 항공불포함
인솔자:데이빗 한

코스타리카 골프
골프 3라운딩 + 온천
2026년 1/8(목),1/12(월),1/22(목) 출발
5박6일 $1,790 항공불포함
4분이상 예약가능/연합투어

오~ 필승 코리아~!!
U.S. Men's National Soccer Team
VS SOUTH KOREA
VA to NJ 왕복 차량 서비스 and 팁 포함
9/6(토) $84(티켓 불포함)
VS
대형버스

고국의 맛! 프리미엄 고국투어
항공 불포함
모든 옵션 포함!!

2025년 가을
10/15(수)-10/25(토)
내륙일주 7박 8일 $2,390
전국일주(제주포함) 10박 11일 $2,990
서울-전주-여수-남해-거제-외도-부산-경주-포항-안동-속초-제주
전일정 5성급 호텔, 리무진 버스 투어
2026년 봄
4/11(토)-4/18(토)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딜럭스 7박8일 $2,590

땡스기빙 4박5일 코스타리카
따바콘온천/행잉브릿지
커피투어/라빠스생태공원
11/26(수)-11/30(일)
항공포함 $2,090 인솔자:세라정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해외 여행

항공 불포함 (인솔자)

10/09(목)-10/18(토)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마감
10/17(금)-10/30(목) 프랑스 일주 13박14일 마감
11/29(토)-12/12(금)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니) 마감

09/14(일)-09/24(수) 서유럽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태리 마감임박
10박11일 $3,590 2자리 가능! 애나 김

09/30(화)-10/13(월) 동유럽 & 크로아티아,돌로미티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마감임박
13박14일 $4,890

09/30(화)-10/07(화) 동유럽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마감임박
7박8일 $2,890

10/06(월)-10/13(월) 크로아티아
7박8일 $2,990 애나 김

10/15(수)-10/25(토) 가을, 프리미엄 고국투어
10박11일 $2,990 딜럭스 리무진 버스 인솔자

10/15(수)-10/26(일) 스페인 & 포르투갈 마감임박
11박12일 $3,690 세라 정

10/19(일)-10/31(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죠앤 한

10/22(수)-10/31(금) 튀르키예 하이라이트
9박10일 $2,890

11/07(금)-11/19(수) 일본 알펜투어+북해도 맛여행
12박13일 $5,995 재키 조

11/26(수)-11/30(일) 땡스기빙 코스타리카
4박5일 $2,090 항공포함 세라 정

2026년 여행 미리 준비하세요~

01/10(토)-01/19(월) 오만,사우디 아라비아,카타르 NEW
9박10일 $5,190 SMALL GROUP TOUR 죠앤 한

01/16(목)-01/24(토) 바하마 크루즈 (볼티모어 출발)
8박9일 인사이드 $1,340부터 오션뷰 $1,440부터 인솔자

01/29(목)-02/08(일) 신비의 북인도 여행
10박11일 $3,590 재키 조

01/29(목)-02/10(화) 북인도+두바이 Stop Over
12박13일 $4,850

02/09(월)-02/14(토)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5박6일 $2,190 항공포함 세라 정

02/09(월)-02/21(토) 남인도+스리랑카
12박13일 $5,150 죠앤 한

02/14(토)-02/21(토) 스리랑카 문화탐방
7박8일 $2,980

02/17(화)-02/26(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190 데이빗 한

02/23(월)-03/22(일) 남미 일주
27박28일 $19,550

02/23(월)-03/08(일)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
14박15일 $9,900 재키 조

03/07(토)-03/15(일)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5,490

03/14(토)-03/22(일) 페루 일주
8박9일 $3,590

03/23(월)-04/01(수)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9박10일 $3,690 죠앤 한

일본 + 한국 + 중국

03/30(월)-04/11(토) 일본 맛여행+환상의 벚꽃축제
12박13일 $5,995 재키 조

04/11(토)-04/18(토)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7박8일 $2,590 딜럭스 리무진 버스 재키 조

04/20(월)-04/28(화) 중국 실크로드
8박9일 $3,490 죠앤 한

04/09(목)-04/17(금) 베네룩스 3국
8박9일 $3,890 봄 특선! 세라 정

04/20(월)-05/01(금)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3,790 애나 김

04/28(월)-05/10(일) 그리스 섬 일주
12박13일 크레테 섬, 산토리니, 미코노스,낙소스, 아테네 재키 조

05/04(월)-05/14(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태리
10박11일 $3,590 세라 정

05/06(수)-05/18(월) 그리스 & 터키
12박13일 $3,690 죠앤 한

05/24(일)-06/04(목) 알프스 파노라믹 투어

06/01(월)-06/13(토) 코카서스 3국
12박13일 $4,490 죠앤 한

06/29(월)-07/12(일)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07/09(목)-07/14(화) 캐나다 록키 4박5일

08/07(금)-08/21(금) 케냐,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BLUE TRAIN

08/07(금)-08/19(수) 아프리카 사파리 & 빅토리아 폭포

08/07(금)-08/14(금) 아프리카 케냐

08/17(월)-08/29(토) 아이슬랜드 + 그린랜드

08/12(수)-08/18(화) 알라스카

09/07(월)-09/16(수) 북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09/17(목)-09/29(화) 발칸 일주 8개국

09/28(월)-10/08(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태리

10/12(월)-10/23(금) 11박12일 포르투갈 & 스페인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통령 "산재는 사회적 타살"… 입찰자격 영구박탈 검토

국무회의서 산재 근절 방안 논의
"대형건설사 처벌사례 1건도 없어 안전비용 확보하도록 과징금 검토"
'감전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번에는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면서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의 시공사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 안 된다"며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다. 또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안전조치를 했는지,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경향이 있던데,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고,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빈번한 원인으로 '재하도급'을 꼽은 뒤 "위험의 외주화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추가로 알렸다. 이 대통령은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건설사)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 ▶금융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 신고 때 파격적 포상금 지급 방안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날 감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망 사고를 강하게 질타했는데도 지난 4일 같은 회사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감전 사고가 발생하자 여름휴가 중인 지난 6일 이 회사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었다. 법무부도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윤지원 기자

정부 '비정규직 제로' 재추진… 전문가 "인건비 늘어 신규채용 줄어들 수도"

〈공공부문〉

국정위 실천과제에 포함
문 정부 때 도입, 효과 적어 중단
고용부 "개선안 마련해 시행 검토"

이재명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국정기획위원회 실천과제에 오른다.

국정위가 13일 발표하는 국정과제 가운데 실천과제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기관에 대해선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후속 조치다.

민간부문 대상으로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다시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했지만,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정규직 전환 효과도 미미해 신규 지원이 중단된 제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개선한 뒤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실천과제로 기간제법·파견법상 정규직 고용 예외 연령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올리는 안도 있다. 개정 방안이 시행되면, 55세부터 60세까지의 고령 인력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당초 국정위 보고에서 "55~60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재고용 기회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다.

국정위는 또 주 15시간 미만(4주 평균)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쓸 수 있도록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공공부문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

국정위가 내세운 실천과제는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과 초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전면 정규직화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겠지만, 인건비 급증으로 신규 채용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 남용 문제는 고용 유연성은 낮고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며 "본질적인 원인에 접근하지 않고 '일단 쓰지 말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김연주 기자

"당원만 보고 정치해선 안돼"… 민주당 원로들, 정청래에 쓴소리

정청래,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
문희상 "과유불급 잊지 말라"
이용득 "악마와도 손 잡아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취임 후 첫 당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쓴소리를 들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후배로서 잘 이어가겠다"고 인사한 뒤 "내란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고 정의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9명 상임고문의 가감 없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잊지 말아야 할 건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며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겠다는 (정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자체가 붕괴한 상황에 처해,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길은 그것(속도감)만으로는 안 되는 걸 잊지 말라. 그걸 하려다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정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공약에 대해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다. 집권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데 1년8개월이 걸렸다. 윤석열 정부가 파멸한 원인은 정치 실종"이라며 "당원 아닌 국민으로부터도 존중받고, 함께하는 정당으로 발전해 줘야 미래지향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이용득 전 의원도 "정치는 국민을 위해 하는 건데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고언했다.

현안에 대응에 관한 주문도 있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2030년에 중임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향으로 내년(6월) 지방선거까지 개헌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발생하는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엔 불교계 지도자를 잇따라 예방했다. 전날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에 이어 이날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을 예방했다. 진우스님은 정 대표에게 "지나치게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보현·조수빈 기자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ar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특별사면 후폭풍 … 국민의힘도 MB도 8·15 임명식 안 간다

〈광복절 행사〉

범야권 "보여주기식 행사 참여 안해"
초대받은 박근혜도 불참 여부 검토
혁신당은 조국 재심 가능성 거론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발의까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사면·복권을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15일 '국민 임명식' 행사 불참을 선언한 반면 조국혁신당은 사면·복권에서 더 나아가 재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사면은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엉뚱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대통령이 자기편에는 관대하고 사회엔 엄벌주의를 강화하면서 축제성 행사를 열겠다니 황당하다"며 "광복절에 조국·윤미향 사면을 축복하는 듯한 기이한 행사에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초대를 받은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 또한 모두 불참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불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 임명식은 광복절 80주년인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당일 오후 7시40분부터 8시30분까지 문화·예술 공연을 한 뒤 오후 8시30분부터 30분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슬로건 아래 국민 1만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현재로선 범보수 진영이 입장을 바꿔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 명단이 확정되기 전부터 이들이 반발해왔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정치인의 명단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에도 야권은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위선자 조국,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유용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범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 나라를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씨,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사면발이보다 못한 조국, 윤미향 사면.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복원'이냐"며 "결국 당신은 뼈저린 후회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국혁신당은 재심을 거론하며 더욱 내달렸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현재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며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조치엔 공소취소나 재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손국희·조수빈 기자

전한길 출입 막았지만 … 국민의힘 합동연설회 또 아수라장

전, 출입금지 처분에 "대승적 수용"
찬탄·반탄 지지자끼리 충돌 재연
윤희숙은 여의도연구원장직 사퇴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두 번째 합동연설회도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행사장 출입은 막았지만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 후보 지지자 간의 극한 충돌이 재연된 것이다.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PK) 연설회에서 "배신자" "꺼져라" 같은 모욕적인 고함은 계속됐다. 연설 시작에 앞서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정 경쟁 준수 서약'을 받았지만 볼썽사나운 지지자 간 충돌이 이어지며 상호 비방·모함을 배격한다는 서약이 무색해졌다.

'윤 어게인(Yoon Again)' 세력과의 단절을 주장하는 조경태 후보가 첫 연설자로 나오자 일부 당원은 "배신자"란 구호를 계속해서 외쳤다. 고성 소리에 4분 이상 연설 대신 양손을 들어 당원들을 진정시켜야 했던 그는 "국민과 당원을 배신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권을 갖다 바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후보도 "친길(친전한길) 당 대표, '윤 어게인' 당 대표를 세우면 당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재명 민주당이 파놓은 계엄 정당, 내란 정당 늪에 그대로 빠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후보 연설 때 반탄 후보 지지자들은 집단적으로 연설장을 빠져 나가기도 했다.

반탄 주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했다. 장동혁 후보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사법부를 겁박해 5개의 재판을 멈춰 세운 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며 "이재명을 반드시 탄핵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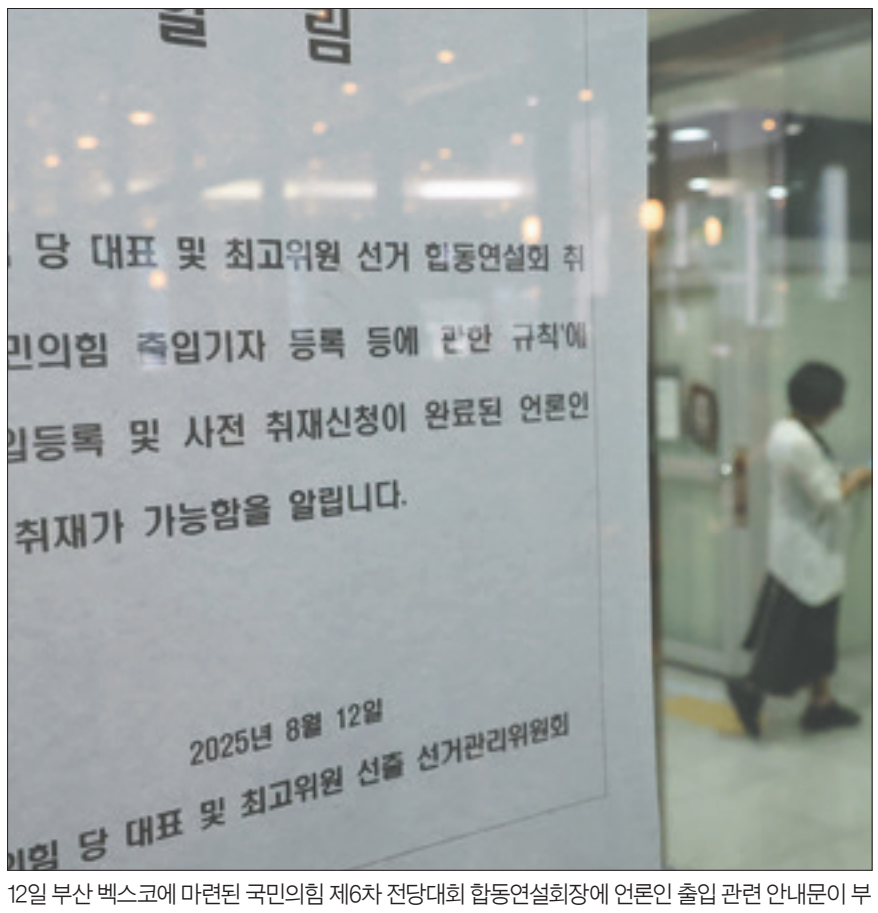
김문수 후보도 "당 대표가 되면 (이 대통령) 재판을 계속하도록 촉구하는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을 지키고 민주당을 먼저 해산시키겠다"고 했다.

지난 8일 대구·경북 연설회에서 전한길씨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었던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또 다시 야유가 쏟아지자 "배신자 김근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PK 연설회는 전한길씨의 등장 가능성으로 한때 긴장감이 맴돌았다. 전씨는 지난 연설회에 '언론인' 신분으로 입장했지만 "배신자" 구호를 외치는 등 당원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다. 전씨는 이날 행사장 입구까지 왔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의 결정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고 철수했다.

대신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으로 가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연구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윤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며 "혁신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적었다. 김규태 기자



12일 부산 벡스코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 언론인 출입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지난 8일 대구 전당대회장에서 충돌을 부른 전한길씨는 출입이 금지됐다. 송봉근 기자

"노란봉투법 통과 땐 산업 붕괴" 경총 회장, 의원 전원에 편지

〈손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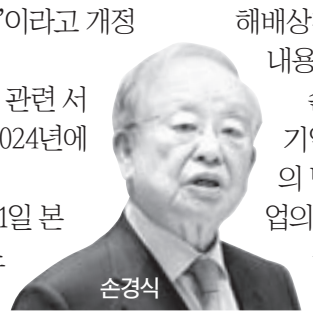
"원청 상대 쟁의행위 상시 발생
기업들 정상적 사업 어려울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노조법 2·3조'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회장은 해당 서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 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개정 중단을 호소했다.

손 회장이 노란봉투법 관련 서한을 보낸 것은 2023년,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2조)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 핵심이다.


손경식

손 회장은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구조조정이나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손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대체 근로 허용'이나 '사업장 점거 금지'를 사용자 방어권의 예시로 들었다.

서한에서는 해외 주한상공회의소들의 우려도 전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으며, 외국 투자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김수민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헬렌 서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571-225-0110

매년 내던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 올해 발간 안할 듯

당국자 "새로운 진술 많지 않아"
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펴내
북 자극 피하려는 기조 반영된 듯

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오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인 만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2024년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입국하는 탈북민이 연간 200명가량인데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체류하다 입국해 최신 북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많지 않다"며 "의미 있는 증언을 확보하기 어렵고 추가되는 내용도 적은 상태에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증언 수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꼽았지만,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돌파구를 열겠다고 밝힌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남북기본합의서 2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에 정면 위배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 실태를 기록한 책자다. 정부는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2023년 3월 공개한 첫 보고서에는 탈북민 508명이 증언한 약 1600개의 인권침해 사례가 담겼다. 지난해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첫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진술 자료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증언이 더해졌다.

정영교 기자

철거 안된 북한 확성기 12일 북한 초소에 대남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정부는 이날 "북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 자료 발간 문제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의 봄' 신군부에 맞서다 사망… 법원 "김오랑 유족에 국가가 배상"

〈사망 당시 소령〉

특전사령관 불법체포 막다 피살
46년 만에 "3억 배상하라" 판결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저항하다 숨진 고(故) 김오랑(육사 25기, 사망 당시 소령·사진)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2·12 당시 정병주 육군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오진호 소령(정해인 역)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기일을 열어 김

중령 유족 10명에게 국가가 약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유족이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김 중령의 죽음 46년 만이다.

김 중령은 1979년 12월 13일 0시20분쯤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에 홀로 맞서다 피살됐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시신은 특전사 사령부 뒷산에 가매장했다가 화장한 후 국립서울현충원 유골안치소에 보관했다. 김 중령 모친은 속앓이하다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고 91년 사망했다.

유골 안치소에 방치된 유골은 80년 2월 육사 동기들의 탄원으로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후 90년 중령으로 특진 추서됐고 2014년 보국훈장 삼일장이 추서됐다.

그의 죽음은 43년 만에 '전사'로 바로잡혔다. 2022년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김 중령은 특전사령관을 불법으로 체포하려던 반란군에 대항하다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히면서다.

규명위는 "망인의 죽음을 개인적 죽음으로 축소하고 불법적 살상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던 신군부의 기만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순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구분된다. 김 중령이 12·12 군사반란에 대항하다가 사망한 만큼 전사가 타당하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규명위 발표 후 같은 해 11월 김 중령을 전사자로 변경했다.

김 중령 사연은 2023년 11월 개봉한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에 누나 김쾌평씨 등 유족은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란군이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해 허위사실로 김 중령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했다"며 사망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왜곡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는 취지였다.

김준영 기자

매출 71조원 샤오미가 소상공인? 번지수 틀린 소비쿠폰

삼성·LG 등 국내 기업선 못 쓰지만
두달 전 문 연 샤오미 직영점은 가능
"정책 취지에 어긋나" 논란 커지자
행안부 "샤오미, 사용처에서 제외"

"소비쿠폰(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 샤오미로 많이들 오시죠."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몰에 위치한 '샤오미 스토어'의 직원은 "여기 있는 모든 제품에 소비쿠폰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매장 곳곳과 계산대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난 6월에 문을 연 이곳은 샤오미 한국 법인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직영 매장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 사용처에 한국 가전 대·중견 기업들은 빠진 반면, 중국 빅테크 기업 샤오미가 포함돼 논란이다. 정부가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업종으로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과 '대형 외국계 매장'을 명시하면서 삼성스토어, LG베스트샵, 하이마트 등 국내 가전 양판점은 물론 미국 애플이 운영하는 애플스토어도 제외됐다.

그러나 중앙일보 확인 결과 중국 샤오미의 한국법인 샤오미코리아가 운영하는 직영 매장에서는 서울 시민들이 받은 소비쿠폰을 이용해 샤오미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정부의 기준에 따라 해당 매장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분류된 탓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샤오미의 지난해 매출은 3659억위안(약 71조원)으로, SK하이닉스(약 66조1930억원)를 웃돈다.

이날 매장에서 만난 직원들은 70만원대 TV 제품을 소개하면서 "15만원이 넘는 제품을 사더라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며 소비쿠폰을 활용해 구매하도록 권했다. 이곳에서는 샤오미 스마트폰이나 TV뿐만 아니라 선풍기, 전기밥솥, 무선청소기, 제습기, 헤어드라이어 등 각종 생활가전을 포함한 100여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평일 오후였는데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샤오미 제품을 구경하러 온 소비자들로 북적였다.

중국 빅테크 기업이 직영하는 국내 매장에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쿠폰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며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발행 계획을 내놨다. 이 때문에 대기업 계열 편의점 직영점이나 기업형 수퍼마켓(SSM)은 물론, 중견기업 유통 매장도 모두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이가람 기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GALAXY REALTY 갤럭시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택 매매 및 렌트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 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4/20 마켓에 올라올 예정
	8350Greensbo McLean, VA UNDER CONTRACT	$445,000	바이어가 딱 원하는 조건의 집 8/18 세틀먼트 완료 NEW
	8512 Pine Spr Severn, MD UNDER CONTRACT	$650,000	2.75% 군인 융자 그대로 이어받은 상당히 좋은 조건의 계약 성공 8/18 세틀먼트 완료
	6110-A Hoskins Hollow Cir, Centreville, VA SOLD	$480,000	손님이 딱 원하는 조건의 집을 경쟁해서 이김. 이기는 오퍼 자신 있음. 8/8 세틀먼트 완료 NEW
	1631 Cecile St, McLean, VA SOLD	$1,420,000	세입자 퇴거 다음 날 세틀먼트, 주인 (셀러) 이름으로 유틸러티 오픈할 필요 없음 7/1 세틀먼트 완료
	1930 Battery Park Ct Vienna, VA SOLD	$1,315,000	여러 오퍼 경쟁 뚫고 득템, 이기는 오퍼 자신 있음. 5/20 세틀먼트 완료
사업체 매매	델리샵(DC)	$150K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주소	기간	세입자
올 여름/가을에 파견 나올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8월 말~ 12월 말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NEW	2년 RENTED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8380 Greensboro Dr, McLean, VA NEW	3년 RENTED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1645 International Dr, McLean, VA NEW	1년 RENTED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1년 렌트는 잘 안 주는데, 주인측 에이전트를 잘 아는 사람이라 받아줌.
11828 Dinwiddie Dr, Rockville, MD NEW	3년 RENTED	주재원, 세입자, 특히 가족이 좋아함
14010 Tanners House Way, Centreville, VA NEW	3년 RENTED	주재원, 이전 세입자 4년 살고, 하루의 공실 없이 3년 렌트 이어감
11357 Ridgeline Rd, Fairfax, VA	2년 RENTED	사랑하는 교민
3484 Beale Ct, Woodbridge, VA	8/10 입주가능 RENT	$2,200 2층 타운홈, 방 3, 화1.5, 부엌 리모델링, 교통 상권 편리

그 외 30여채 더 있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져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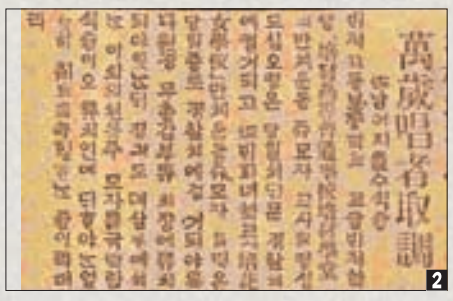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또 다른 유관순 178명 … 14세 왕종순도 "독립만세"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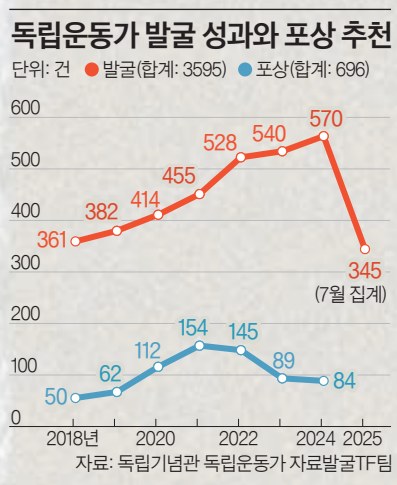
일제 맞섰던 여성 독립운동가들

80년 전 광복은 수많은 순국 선열의 희생으로 현실이 됐다. 이 중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항한 숨겨진 독립운동가가 더 많지만, 대부분은 기록도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 중앙일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 산하 '독립운동가 자료발굴TF팀'(2018년 발족)이 찾아낸 '잊힌 독립 영웅'을 3회에 걸쳐 조명한다. TF팀이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3595명. 존재조차 몰랐던 영웅을 함께 기억함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빛을 찾는 길을 따라가 본다.



1920년 인왕산 남쪽 기슭 필운대에서 일어난 배화여학교 학생들의 3·1운동 1주년 시위에 14세 왕종순이 참여했다. 1 왕종순에 대해 일제가 작성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일제는 '어깨 부위에 천연두 흔적' 등 신체 특징도 명시했다. 2 1920년 3월 8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배화여학교 학생 24명 전원의 구속기소 소식. 여학생이 무더기로 구속된 건 이례적으로 당시 재판 관련 소식은 미주 지역 신문인 신한민보에도 보도됐다. 3 1920년 4월 5일 왕종순의 판결문. 경성지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한국근대사료DB, 독립기념관, 국가기록원]



키 139㎝, 굳게 다문 입술의 왕종순
배화여학교 시위 가담 뒤 징역형
일제, 여중생들까지 가혹한 취조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1920년 3월 1일 오전 8시쯤, 서울 인왕산 남측 자락의 필운대 바위에서 여학생들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배화여학교 학생 40여 명이 3·1운동 1주년을 맞아 벌인 만세 시위였다.

강원도 양양 출신의 김경화(당시 만 18세)와 서울 출신 이수희(만 15세)가 빨래를 널러 가는 척 대야를 들고 먼저 학교 뒷산 필운대에 올랐다. 그들이 언덕에 모습을 드러내자, 그게 신호탄이라도 되는 듯 여학생 수십 명이 순식간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교정까지 내려오며 있는 힘껏 만세를 외쳤다.

그중에서도 유독 앳돼 보이는 여학생이 있었다.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작은 손에 직접 만든 태극기를 꼭 쥔 채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른 그는 겨우 열네 살이던 2학년생 왕종순이었다.

일제의 탄압에 맞서는 데는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없었다. 하지만 여성 독립운동가의 행적 발굴은 지금껏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올해 3·1절을 기준으로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로 공식 포상한 1만8258명 가운데 여성은 664명(3.6%)뿐이다. 독립기념관 산하 '독립운동가 자료발굴TF팀'이 약 7년간 여성 독립운동가 178명을 찾아내 기록으로 남긴 건 그래서 의미가 크다.

왕종순도 TF팀이 발굴해 2019년에야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강원도 철원 출신의 왕종순은 1920년 필운대 시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철원의 유관순'이었다.

매일신보 등 당시 기록에 따르면 관할 종로경찰서에서 출동한 경찰들은 시위 학생 전원을 학교 기도실에 몰아넣은 뒤 한 명씩 불러 '주동자 색출'을 했다.

신문은 당시 상황을 "경찰이 선동 주모자를 극력 탐색 중이고 엄중히 취조를 계속하고 있다"고 묘사했다. 14~18세에 불과했던 여학생들을 가혹하게 취조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왕종순의 나이는 고작 만 14세5개월(음력 1905년 11월생)로 필운대 시위 참여자 중 최연소였다.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입을 열지 않았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특히 반항적인' 학생 24명을 골라 경찰서로 연행는데, 왕종순이 여기에 포함됐다.

당시 일제는 요주의 인물을 감시하기 위해 신상을 기록한 '감시대상인물카드'를 제작하곤 했는데, 왕종순은 '지문번호 98668 83898'로 기록했다. 사진 속 열네 살 왕종순의 눈빛은 매서웠다. 신장은 4척6촌3분(약 139㎝), 자그마한 체구에 굳게 다문 입술엔 조금 전까지 "대한 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치던 기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일제는 '어깨 부위에 천연두 흔적' 등 그의 신체 특징도 적어놨다. 이름이나 외모를 바꿔도 추적이나 신원 확인을 용이하게 하려는 술수로, 어린 왕종순이 다음에 또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경성사립배화여학교 생도로서…조선독립만세를 고창(高昌)하여 독립운동에 찬동하는 의사를 표할 것을 기도하여…치안을 방해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일제 조선총독부 검사 요코타 요시타로(横田義太郞)는 왕종순을 보안법과 조선형사령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경성지법 판사 미타무라 구니타로(三田村國太郞)는 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어린 여중생임을 고려하면 이례적 중형이었다.

여성이 교육받는 게 흔치 않던 시절, 왕종순처럼 학교에 다니던 여성들은

철원 만세행렬 이끈 21세 이각경
친일파 집 찾아 "이완용 내놓으라"
역대 포상 1.8만명 중 여성 664명뿐

'신여성' 축에 꼈다. 깨인 여성들은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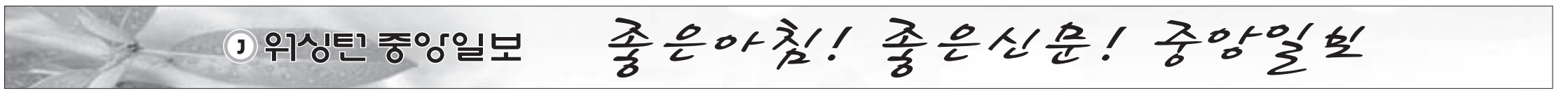
1919년 3월 10~11일 강원도 철원 읍내의 첫 만세 행렬을 주도한 이각경(당시 21세)이 그랬다.

개성 호수돈여학교를 나온 이각경은 여학교 동창 김경순 등 700명의 주민과 함께 철원군청·철원역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친일파 박의병의 집으로 찾아가선 "독립 만세를 외쳐라" "숨겨 놓은 이완용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각경은 후에 자신의 재판에서 "나는 경성 조선독립 시위 운동에(을) 본받아 독립 시위운동의 방법으로 상술과 같이 떠들었다"고 주장했다. 일제 판사 앞에서 자신이 독립운동을 주도했음을 당당히 밝힌 셈이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20원을 선고했다. 그가 징역형을 받은 사실은 1919년 10월 14일자 독립신문에 '철원독립군의 판결' 제하 기사로도 실렸다. '이각경 여사'는 70년대 발간된 독립운동사에도 등장한다. 그가 철원 만세 운동에서 "선봉에서 활약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각경은 TF팀이 지난해에야 발굴해 제대로 알려질 수 있게 됐다. 철원 만세 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이들 중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우 자체가 이소희(2016년 대통령표창) 여사 등 일부에 불과하다.

◈특별취재팀=유지혜·이유정·박현주 기자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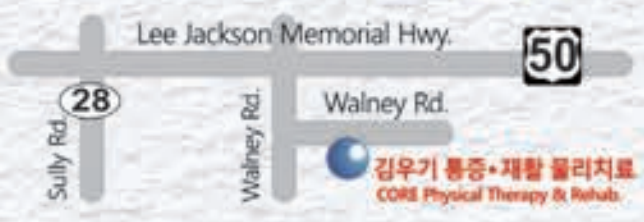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우리말 바루기

재미만 쫓는(?) 드라마

종종 영화나 드라마가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그럴 때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제대로 된 역사 의식 없이 재미만 쫓는 작품을 보고 싶지 않다" "역사를 왜곡하고 자극만 쫓는 드라마는 폐지돼야 한다" 등과 같은 비판이 올라오기도 한다.

이런 경우 '쫓다' '좇다'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 헷갈린다. '쫓다'는 "쫓고 쫓기는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였다"처럼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해 뒤를 급히 따르는 경우에 쓰인다. "새를 쫓았다"와 같이 어떤 자리에서 떠나도록 몰아낸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팔뚝을 꼬집기도 하면서 잠을 쫓았다"처럼 밀려드는 졸음이나 잡념 등을 물리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좇다'는 "명예를 좇는 젊은이"처럼 목표·이상·행복 등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부모님의 의견을 좇기로 했다"에서와 같이 남의 말이나 뜻을 따른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런 관례를 좇고 있을 계제가 못 된다"처럼 규칙이나 관습 등을 지켜 그대로 한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스승의 학설을 좇았다"와 같이 남의 이론 등을 따른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서두의 예문들도 모두 재미나 자극 등 무엇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므로 '쫓는'을 '좇는'으로 고쳐야 한다. 몸을 직접 움직여 하는 행동에는 '쫓다', 심리적 지향이나 추구 등을 나타낼 땐 '좇다'를 쓰면 된다.

중앙칼럼

주빈국 한국이 들러리 된 축제

최인성
경제부 부국장

많은 소수계가 운집해 살고 있는 LA는 말 그대로 '끓는 솥(melting pot)'처럼 다양한 취향과 문화, 가치관이 뒤섞인 곳이다. 그래서 재미있고 신기한 곳이다.

때로는 공통분모에 협력하고, 종종 다른 생각과 접근으로 대치하고 반목하기도 한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다만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 서로를 잘 알리고, 갈등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보고, 부대끼는 것 아닌가.

남가주에서 이민 생활이 익어가면서 시청과 카운티 등 각급 기관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노라면 많은 소수계 커뮤니티가 적잖은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고 자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겪게 된다.

지난 7월12일 LA시 부서인 공원국 주관으로 LA 연꽃 축제(Lotus Festival)가 열렸다. 이 행사는 LA 다운타운 인근의 수많은 가족과 청소년들이 매년 방문해 즐기는 오래된 축제다.

중앙 무대에서는 30여 개 팀이 공연을 펼쳤는데 한국 관련 공연은 2~3팀이 전부였다. 물론 주빈국이 한국이라서 LA 문화원이 오프닝 행사 90분을 촘촘히 꾸몄다. 적잖은 돈과 노력이 투입된 것은 물론이다. 많은 청소년과 공연팀들이 더운 날씨에 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12~13일 이틀 동안 중앙 무대에서는 어떤 공연들이 있었을까. 대부분은 중국계와 일본계, 태국과 필리핀계 공연이 중심축이 됐다.

꼭 무대 위 공연 숫자가 많아야만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주빈국이 한국이라는 생각을 하고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축제가 됐을 것이다. 시에서 매년 수십만 달러의 예산으로 마련하는 축제에 주빈국으로 초대되어도 정작 주인이 되지 못한 것이다.

준비로 밤을 지새웠을 문화원 관계자들을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다만 문화 공연에서 우리 커뮤니티의 역량이 더 커지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긴다.

역시 시 정부가 지원하는 '다인(Dine) LA'에도 비슷한 생각이 남는다.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2주 동안 진행된 이 이벤트는 시민들이 더욱 다양한 외식을 통해 음식 문화를 알아가고 경기 활성화에도 일조한다는 것이 취지였다. 800여 개 참가 업체 중 한인 업체는 5~6곳에 불과했다. 참가비도 1000달러가량 내야 하고, 메뉴도 개발하고 자체 홍보도 해야 하니 일이 많아진다. 요즘처럼 직원들 쓰기도 힘든 시기에 번거롭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

개별 업소가 각개전투식으로 참가한다면 힘겨울 수 있지만, 요식업 단체나 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준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한식 업소들이 따로 주제를 정하고 요일별로 각종 특색있는 한식을 맛보도록 지도도 만들고 필요한 공간에 안내한다면 어떨까. 참가한인 업소들에 관련 내용을 한글과 영어로 홍보하는 전단도 만들어 배포하면 어떨까. 여기에 맞춰 한인 단체들과 모임들이 나서서 도움을 준다면 더 업계가 풍성하게 다인 LA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월드컵과 올림픽도 다가오고, 결국 더 많은 시민이 한식을 맛보고 즐길 기회인데 매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한인사회가 우리 스스로 낸 세금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 정부가 관내 비즈니스에 주는 혜택이라면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맞지 않나.

결국 이런 노력은 기관들에도 한인사회가 매우 부지런하고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것이며, 우리 2세들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돌아올 것이다.

열린광장

검은 관광, 아픔을 마주할 용기

최복림
시인

독일 여행, 투어 가이드는 일행을 베를린의 한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자동차 30~40대를 세울 수 있는 크지 않은 곳이었다. 왜 이곳에 우리를 안내했는지 의아했다.

독일인 현지 가이드는 한참 머뭇거린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가 히틀러 지하 벙커입니다. 2차 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나기 직전, 히틀러는 소련군이 베를린 외곽에서 곧 여기를 덮칠 것을 알았습니다. 히틀러는 벙커에서 삶을 같이했던 여인과 아이들을 먼저 죽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불에 태워달라고 말했고 그를 신처럼 따랐던 부하들은 유언대로 가솔린으로 불을 질러 그와 선전상, 가족을 모두 태웠습니다."

나는 히틀러의 시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가이드의 대답, "히틀러는 치아가 좋지 않아 구별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의 암울한 관광은 이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뉴욕 한인 언론에서 근무하던 시절, 신문사의 배려로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가이드는 우리 일행을 홀로코스트 뮤지엄으로 안내했다. 이곳에는 2차 대전 때 학살당한 수백만 명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야말로 암울한 관광이었다. 눈물이 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후 유럽 여행을 할 때마다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찾았고 여행기를 써서 세기적인 비극을 독자들에게 전했다. 유럽에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없는 곳이 드물다.

나는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여행보다 역사여행에 관심이 많다. 캄보디아 여행 때 내전으로 죽은 자의 유골을 쌓아 놓은 작은 뮤지엄을 보았다. 왜 동족끼리 그렇게 많은 사람을 무차별로 죽였을까.

가이드의 말, "저기 머리뼈를 보세요. 어떤 것은 흰색, 다른 머리는 약간 불그스름 하지요. 출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두개골 색깔이 다릅니다." 어린 학생들은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지나치듯 듣고 있었다.

소설 '생스빌의 그 언덕'을 쓰기 위해 레바논을 여행했다. 1970년대 이 나라는 내전으로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다. 구덩이를 파고, 한 줄로 세워 사살한 후 흙으로 덮었다.

7월 7일 아침, 뉴욕타임스에 실린 가이아나 존스 집단 자살 기사를 읽었다. (가이아나는 남미 상단에 있는 작은 나라다.)

50년 전 짐 존스는 사교 집단을 만들어 인디애나에서 캘리포니아로 옮겨 세력을 확장하다 당국에 쫓겨 가이아나 밀림으로 도망간다. 이 사교 집단에 가입하면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무조건 교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마지막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안 존스는 1000명의 신도에게 사약을 나누어 주고 자신과 함께 집단 자살한다. 가이아나 관광 당국이 우선 소수를 초청해 어두운 역사 투어를 시작했다는 기사다.

인류 역사상, '검은 관광'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이다. 왜 어두운 과거를 찾아야 하는가. 과거의 아픔을 알지 못하면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할 위험성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공산주의자' 의심받던 박정희, 반공을 국가 이념으로

5·16 군사정변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서울 시내에 도열한 박정희(가운데)와 박종규(왼쪽), 차지철(오른쪽). 박종규와 차지철은 박정희의 최측근으로 뒷날 모두 대통령 경호실장이 된다. [중앙포토]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한 가지, 박정희 시대를 거쳐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이르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 현대사에 깊은 발자국을 남긴 박정희 시대는 알다시피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시작됐다.

61년 4월 21일 : 쿠데타를 2군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이 주도하고 있다. 육군 지휘관들은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본다.

23일 : 음모는 육군과 학생, 개혁가들이 지지하고 있다.

24일 : 군부 음모에 대한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의 견해. 박정희를 체포하고 싶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 체포가 쿠데타를 촉발할지 모른다.

5·16이 일어나기 직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가 워싱턴 본부에 보고한 내용들이다. 모의가 사전에 알려진 셈이다.

그런데도 쿠데타는 국군 60만 명, 주한미군 5만6000명이 있던 나라에서 단 3600명의 병력만으로 성공했다. 5·16의 주축이었던 김종필은 "혁명은 숫자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가 말한 '의지'가 정변 세력의 그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5·16의 성공에는 '의지 없음'도 크게 작용했다. 쿠데타를 막으려는 의지가 누구에게도 없었다.

1950년대 후반 들어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젊은 영관급 장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특히 군 내부의 파벌 대립을 두고서였다. 젊은 장교들이 보기에 각 파벌의 정점에 선 몇몇 장군들은 숙청 대상이었다. 장군들이 물러나지 않음으로써 생긴, 인사적체 불만도 있었다. 김종필 육군본부 첩보부대 행정처장(중령)을 비롯한 영관급 장교들은 공개적으로 장군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정군(整軍) 운동'에 나섰다. 김종필의 처삼촌인 박정희는 장군이었지만 영관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 자신, 상관인 송요찬 육군 참모총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회도 혼란스러웠다. 여기저기서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데모를 하지 말자'는 데모 반대 데모까지 있었다. 59년 5.7%였던 경제성장률은 60년 2.4%로 떨어졌다. '정군'을 요구한 군부 개혁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사회 개혁까지 꿈꾸지 않았을까.

김일성, 61년 3월 "남한 군부 반란 가능성"

박정희와 김종필은 61년 2월 쿠데타를 결의했다. 모의는 각종 정보 레이더에 걸렸다. 심지어 북한도 낌새를 챘다. 61년 3월 31일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이 베이징에 보낸 전문에는 '김일성이 남한 군부 내 반란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내각 수반인 장면 총리는 쿠데타 정보를 그간 몇 차례 있었던 정군 움직임 정도로 여겼다.

5월 16일 새벽, 쿠데타가 일어났다. 한강 인도교에서 헌병대와 총격전이 오갔을 뿐, 그 이상 쿠데타를 막아서는 세력은 없었다. 정부와 군을 이끌고 쿠데타를 막았어야 할 장면 총리는 당일 새벽 4시 쿠데타 소식을 듣고 혜화동 수녀원으로 피신했다.

그날 아침, 장면은 마셜 그린 주한 미국대사 대리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이 멀지 않은 곳에 피신했다고 알렸다. 오전 11시쯤 그린은 카터 매그루더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과 함께 상징적 국가 원수인 윤보선 대통령을 만났다. 매그루더는 이한림 사령관 휘하 1군을 동원해 서울을 포위하겠다는 쿠데타 진압 방안을 제시했다. 윤보선은 반대했다.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국군 상호 간에 교전하면 북한이 남침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윤보선의 말을 곧이곧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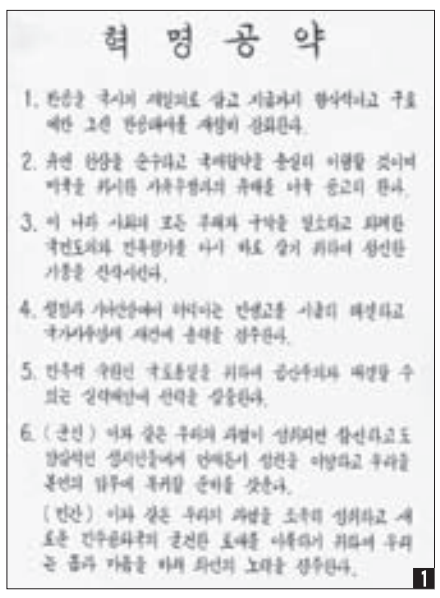
박정희, 군내 남로당 조직책 전력
미국 의심 씻으려고 용공세력 색출

주한미군사령관의 진압 작전 건의
윤보선 대통령이 "남침 우려" 반대

극심한 혼란과 경제난 속 쿠데타
진보 잡지 사상계 "불가피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묘했던 모양이다. 면담 직후 매그루더와 그린이 각각 본국에 보낸 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윤보선이 정치 적수인 장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받아들일 만한 방법으로 쿠데타를 간주하는 듯했다."(매그루더), "윤 대통령이 장면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대해 말하면서 거국 내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환멸이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했다."(그린) 필자가 보기에 윤보선은 쿠데타 세력이 군에 복귀하면 자신을 중심으로 한 민간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한 것이 아닌가 싶다.

매그루더가 진압 방안을 내놨으나 정작 미국 정부의 생각은 달랐다. 16일 오전 10시18분 매그루더는 본국 정부와 상의 없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내용의



혁 명 공 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시급히 황폐하고 구토 속한 그간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정신혁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정권과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집중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군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민정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민간)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도중에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윤리관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1

2

1 5·16 군사혁명위원회가 내건 혁명공약 6개항. 2 마셜 그린 주한 미국대사 대리(왼쪽)와 카터 매그루더 주한미군사령관. 이들은 애초 쿠데타에 반대했다. [중앙포토]

성명을 발표했다. 윤보선을 만난 건 그 직후였다. 그러고 몇 시간 뒤 매그루더에게 미국 정부의 공식 지침이 전달됐다. "공산주의 침략에 관한 한국의 방위 임무 외에 더 이상의 성명을 내는 것은 피할 것."

당시 미국의 지상 목표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장면 정부는 미더운 파트너가 아니었다. 주한미국경제협조처(USOM) 휴팔리 부처장은 '1961년 2월 현재 한국의 상황' 보고서에서 "장면 정부의 독직·부패·무능이 한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공산혁명 같은 극단적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다.

미국이 걱정한 것은 박정희의 사상이었다. 박정희는 군부 내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조직책 혐의로 48년 체포됐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형 집행정지되고 다시 군에 투신했다. 전력이 있었기에 5·16 후 미국은 박정희가 반미·공산주의자가 아닌지 의심했다. 이를 의식해서일까. 박정희는 혁명공약 1조를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로 했고, 쿠데타 직후인 16일 오전 용공세력 색출을 지시했다. 결국 5월 18일 체스터 볼즈 미 국무차관은 "박정희가 반공·친미적"이라고 평가하기에 이른다.

4·19 혁명을 성공시킨 시민도 5·16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승만에게 맞서 민주주의를 주창했던 진보 잡지 '사상계'는 6월호에 이런 글을 실었다. '5·16혁명은 (…) 위급한 민족적 현실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일이다 (…) 무능하고 고식적인 집권당과 정부가 수행하지 못한 4·19혁명의 과업을 새로운 혁명세력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5·16혁명의 적극적 의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5·16은 이렇게 시대의 혼란, 장면의 도피, 윤보선의 외면, 미국의 용인, 시민의 기대가 어우러져 박정희 시대를 여는 트리거(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후 18년간의 박정희 시대를 특징짓는 표현은 '고속 성장'과 '독재'일 것이다. 성장에서 박정희의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정부가 강력히 주도한 경제개발이 힘을 발휘했다. 당시 씨앗을 뿌린 중화학공업과 수출산업은 박정희 시대 이후에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엔진이었다.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임상경력 50년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정설침구혈위대전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서울 미국 한방병원
New Hampshire Ave
29 White Oak 도서관
EXIT 28A
650
495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사 설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 통상과 동맹의 퍼즐 풀어야

관세 후속, 동맹 현대화, 북핵 등 난제 수두룩
'위대한 동맹' 걸맞게 상호 윈윈 균형 찾아야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어제(12일)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첫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을 이유로 급거 귀국하면서 불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 불참에 이어 한·미 관세 협상 진행 등으로 양국 정상의 만남은 문재인(취임 51일), 윤석열(취임 11일) 전 대통령 때보다 다소 늦게 이뤄지게 됐다.

이번 회담의 형식이 실무 방문이라는 점이 말해주듯, 두 정상은 첫 대면 자리부터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난제가 많다. 관세협상 후속 조치, 한·미 동맹 현대화, 북한 핵 문제 등 사안 하나하나가 한·미 동맹의 틀을 새로 짜는 사안이다. 우선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합의 후 쌀·소고기 시장 개방,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의 성격 등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는 후속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조정,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포괄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는 트럼프 정부의 안보 청구서다. 대중국 견제에 올인하는 미국 입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대북 연합방위 태세가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두 정상은 확고하게 천명해야 한다.

북한은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더 이상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란 목표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한편, 한·미·일 공조의 바탕 위에서 긴 호흡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다뤄 가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 타결 후인 지난 1일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돌발 상황을 만든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 자리가 앞으로 3년여를 함께할 두 정상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신뢰를 쌓아 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1953년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한·미 관계는 숱한 난관을 극복하고 시대의 조류에 따라 변신하면서 오늘날의 안보·경제 동맹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양국이 또 한번 역사의 파도를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산재사고 났다고 임직원 줄사표 … 기업만 닦달할 일인가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재 관련 기업의 입찰 자격 제한 영구 박탈과 과징금 제도 도입,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 신고 시 파격적인 보상금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산재 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올해 시공 현장에서 4건의 사망사고와 지난 4일 감전에 따른 노동자 의식불명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언급하는 한편,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DL건설의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 9일에는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산재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정부도 산재 처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부와 경찰은 어제 근로감독관과 경찰 70여 명을 투입해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산재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고강도 징벌적 제재를 예고한 대통령과 정부의 서슬 퍼런 기세에 업계는 몸을 바짝 낮추고 있다.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DL건설의 대표이사와 모든 임원, 현장소장·팀장을 포함한 80명이 지난 11일 사표를 냈다. 공사 현장은 올스톱이다. DL건설과 모기업인 DL이앤씨는 120개가 넘는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대통령의 말대로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산재를 막고 줄여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기업을 닦달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산재 발생 빈도가 높은 건설과 제조업은 원청과 하청으로 이뤄진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해 있다. 최저가 입찰제와 공기 단축 압박은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현장 근로자 고령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본질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업에만 윽박지르는 건 한계가 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27명이다. 하루에 2.4명꼴로 발생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는 발생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산재사고를 제로(0)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징벌적 제재에만 집중하면 건설·제조업 생산 현장의 위축은 피할 수 없다. 산재 발생을 감추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낳을 것이다. 이미 산재 은폐율(2021년)은 66.6%에 이른다. 3건 중 2건은 감춰졌다는 이야기다.

산재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산재를 막을 수 없다. 산재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지원과 시스템 구축, 하도급 체제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징벌이 능사는 아니다.

"친구에겐 모든 것을, 적에겐 법을"

고정애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지구 반대편에 살았던 한 인물의 말에 어제처럼 공감한 날이 없었다.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적에게는 법을(For my friends, everything; for my enemies, the law)." 정치적 후견주의다. 자신을 지지한 일부를 진정한 국민으로 여기고 이들에겐 유·무형의 온갖 이득을 안기는 반면, 반대 진영의 이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모질게 대한다. 때론 법도 수단이다(차별적 법치주의). 20세기 초 페루 권위주의 통치자 오스카르 R 베나비데스가 전범을 보였다.

어제 사면이 그런 사례였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압승의 1등 공신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관련자들의 족쇄가 풀렸다.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이(최강욱 전 의원)도, 딸에게 장학금을 준 이(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특사 명단에 올랐다. 또 다른 지지층인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있던 사업가와 얽힌 후임 성남시장(은수미)도 사면됐다. 이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동정했던 의원(윤미향)도, 진보 판사 출신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법무부 차관(이용구)도였다. 그저 몇 명을 빼놓았을 뿐이다.

'국민 통합'이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국민'은 지지자다. 사면만 이런 건 아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했거나 할 법안 중 상당수가 지지층을 챙겼다. 노란봉투법부터 언론 관련 법은 물론, 다가올 '검찰 개혁' 법안도다.

누군가 "문재인은 못 했지만 이재명은 했다"고 감탄했던데, 이런 국정이 가능한 건 역풍을 감내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우호세력까지 원내 190석 가까이 되는 데다 총선은 3년 후다. 국민의힘은 찌질할 대로 찌질해져 경쟁이 안 된다.

사실 사면 때 야당도 의견을 낸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만났더니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 달라고 여러 차례 찾아왔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밀했어야 할 얘기를 들켰을 뿐만 아니라 '볼품없는' 이들을 부탁했다.

이 구조가 한동안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민주당의 우군인 4050은 최대 유권자 블록이고, 오랫동안 그럴 것이다. 또 서울에서, 지방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한 이들의 상당수는 반국민의힘 성향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당선 지역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 지역이 된 이유다. 과거엔 영·호남 의석 차 때문에 국민의힘 계열이 30여 석 접고 들어갔다면, 이젠 수도권 덕분에 민주당이 80여 석 앞서 출발한다. 정당-유권자 정렬이 크게 흔들린 리얼라인먼트(realignment)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의 정·관계, 시민사회는 물론 기업까지 네트워크가 촘촘해졌다. 한때 '보잘것없던' 이력도 이 안에서 탄탄해진다. 성남 조폭 사건 관련자가 지자체 관직을 거쳐 국무총리실 비서관까지 임명된 게 한 예다. 이젠 수도권의 국민의힘 출마자들은 (있기나 하다면) 다선 의원 아니면 장·차관 출신을 상대해야 한다.

정치후견주의 보인 지지층 사면
역풍은 감내할 만하다고 본 것
위기감 없는 야당, 견제도 못 해

더욱이 이 대통령은 선거에 진심이다. 취임 후 기자들에게 "하여튼 (여소야대 속 윤석열 전 대통령은) 힘들었을 것 같다"고 한 일도 있다. 스스로 대선 승리 연합을 해체하고 혼군이 된 윤 전 대통령과 정반대의 길이다. 이해찬의 민주당 20년 집권론은 현실이 돼 가고 있다.

국민의힘 앞엔 20여 년 정치적 황무지가 놓여 있지만 행동에선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성을 쌓는 자 망한다"(정두언 전 의원)는데, 성도 아닌 '탄핵 반대' '부정선거' 구덩이를 파고 고개를 처박고 있다. 이들이 여권을 견제할 수 있을까. 난망이다.

그러므로 여권은 앞으로도 자신의 스케줄대로 독주하고 싶을 때 독주하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출 것이다. 그 사이 그들의 '국민'과 그저 국민 사이의 간격은 벌어질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냐"고 묻는 이도 있겠으나 그들의 '국민'이 되는 길을 택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중앙SUNDAY 편집국장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jl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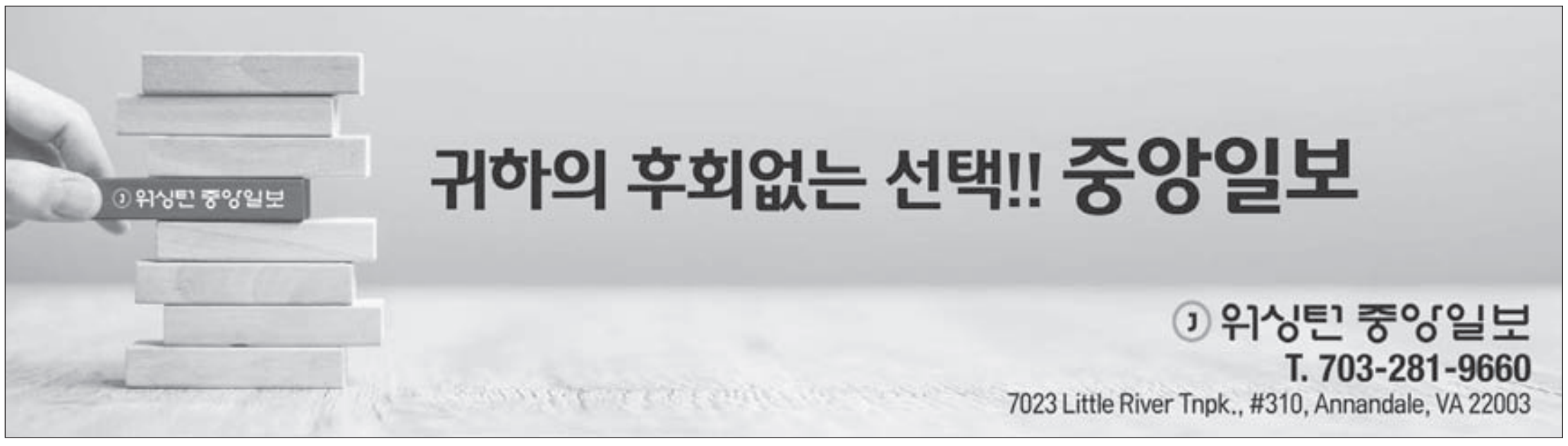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체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독점 Triangle 타운콘도

2014년 BUILT, 방3, 화5 (Full 3, Half 2),
4층 구조, GARAGE, 고급스러운 스타일 부엌
(Granite Countertops, SS Appliances), 아일랜드,
Wood Floor, New Paint, New Deck

$429,900

독점 Alexandria 콘도

방2, 화2, Top Floor 엔드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s,
Deck, 건조기 및 세탁기

$355,000

독점 Centreville 싱글홈

업데이트하고 잘 관리된 예쁜 단독 주택, 전면 벽돌,
2 Car Garage, 방4, 화3 1/2, Gourmet Kitchen,
워크 아웃, 넓은 Deck, 지하에 영화관 시설과
Wet Bar가 있는 넓은 레크리에이션 룸

$915,000

독점 Annandale 타운홈

2 Car Garage, 엔드 유닛, 방4, 화5 (Full 3, Half 2),
4층 구조, 2020년 BUILT, 밝고 환한 럭셔리 홈,
H-MART 가까움

$71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 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703)303-4556 / t.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점인 줄 알았는데 피부암? 자외선 많이 쐬면 위험 '쑥'

"처음엔 그저 흔한 점인 줄 알았죠."

60대 이모씨는 코에 생긴 반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평소 등산, 골프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탓에 생긴 잡티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2년 새 병변은 1㎝ 넘게 커졌고, 뒤늦게 찾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해보니 피부암이었다. 암은 이미 코 연골까지 깊숙이 침투한 상태였다. 결국 이씨는 암 절제술과 성형외과 재건술을 받았고 현재 3~6개월 간격으로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병변 두꺼워지면서 각질 생기기도

자외선은 피부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피부암은 피부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병변이 겉으로 드러나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점·검버섯·사마귀 등으로 오인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레이저 치료로 병을 키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피부암은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인에게 흔한 유형은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 악성흑색종이다. 이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기저세포암은 초기에 점이나 검버섯으로 오해하기 쉽다. 주로 얼굴에 검은색이나 흑갈색의 볼록한 형태로 나타나며 더 진행되면 중심부가 함몰되기도 한다. 한양대병원 피부과 고주연 교수는 "기저세포암은 피부가 하얗고 태닝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서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편평세포암의 주된 발생 부위는 얼굴과 목이다. 붉은 반점처럼 보이다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각질과 진물이 동반된다. 혹이나 사마귀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악성흑색종은 아시아인에게서는 주로 손바닥, 발바닥, 손발톱 주위에 나타난다. 검은 점이나 멍처럼 보이지만 병변이 계속해 커지면서 비대칭적인 모양을 보인다.

피부에 난 점과 암의 구분이 쉽지 않다면 'ABCDE 관찰법'을 기억해 두면 좋다. ▶비대칭성(Asymmetry) ▶경계(Border) ▶색조(Color) ▶직경(Diameter) ▶진화(Evolution)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앞 글자를 딴 명칭이다.

일단 병변의 양쪽 모양이 비대칭이라면 피부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여러 색이 섞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또 점의 크기가 6㎜ 이상일 때, 병변이 점점 커지거나 튀어나오는 경우에도 피부암일 수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

피부암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이다. 자외선이 유전자 정보를 담은 DNA에 손상을 주고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한다. 자외선 누적 노출량이 많은 고령층에서 피부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다.

3~4개월마다 사진 찍어 변화 확인

암을 예방하려면 주된 원인부터 피해야 한다.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태닝이나 일광욕 역시 삼가야 한다. 또 적어도 외출 20분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펴 바르고 야외 활동 시에는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야 한다. 차단제는 자외선 A와 B를 모두 막는 제품으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외선은 파장 길이에 따라 A·B·C로 분류되는데 이 중 자외선 A와 B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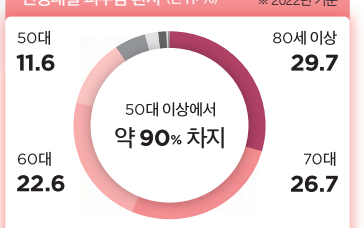
피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이우진 교수는 "간혹 몸에 난 점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조그만 변화에도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보다는 3~4개월마다 사진을 찍어 색이나 모양이 바뀌는지 살피는 게 좋다"고 말했다. 5~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하며 병변을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수 기자

3대 피부암별 특징과 주요 발생 부위

종류	병변의 특징	주요 발생 부위
기저세포암	검은색이나 흑갈색에 약간 볼록한 모양	얼굴(눈·코·입 주위)과 목, 두피
편평세포암	붉은 반점처럼 보이다가 점점 두꺼워짐	얼굴과 목
악성흑색종	검은 반점이 점점 커지면서 불규칙한 형태로 진행	손바닥과 발바닥, 손발톱 주위

연령대별 피부암 환자 (단위: %) ※ 2022년 기준



40대	30대	20대	10대	9세 이하
5.3	2.4	1.2	0.3	0.2

슬기로운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

- 외출 20분 전에 바르고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요.
- 자외선A·B 모두 차단하는 제품을 사용해요.
- 얼굴 외에도 목, 팔, 손등 등 노출 부위에 구석구석 발라요.
- 물놀이할 때는 내수성 제품을 이용해요.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310-B
Annandale, 22003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출국 전 감염병 예방접종 챙기고 설사 유발 길거리 음식 삼가세요

해외여행 건강 수칙

장거리 여행 전에는 감염병 유행 여부와 응급 대응 체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사제·해열제·상처 밴드 등 준비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복약 계획
2시간마다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
상해 치료 대비 여행자보험 들어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떠나는 장거리 여행객이 부쩍 느는 시기다. 여행은 일상의 리듬을 깨는 일이다. 낯선 기후, 새로운 음식, 긴 이동에 따른 체력 소모는 신체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들뜬 마음에 준비를 소홀히 했다간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낭패를 볼 수 있다. 여행이 '추억'이 아닌 '사고'로 기억되지 않도록 출발 전 철저한 사전 점검에 나서자.

장거리 여행을 앞두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본인의 건강 상태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출발 전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여행 일정에 맞춰 복약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차나 식사 패턴 변화로 인해 약 복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 중 복용할 약은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한다. 약품명과 복용 시간표, 약물 알레르기 정보는 미리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고혈압 환자는 휴대용 혈압계를, 당뇨병 환자는 혈당 측정기와 저혈당에 대비한 간식을 챙기도록 한다. 상비약도 빠뜨릴 수 없다. 지사제,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피부 연고, 상처 밴드는 기본으로 준비하는 게 이롭다.

질병관리청 홈피서 해외 감염병 확인

감염병 예방도 중요하다. 동남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은 A형 간염, 말라리아, 황열, 장티푸스 같은 풍토병이 유행한다. 출국 2~4주 전에는 여행자 클리닉이나 감염내과를 방문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라리아 유행 지역 방문 예정이라면 예방약 복용도 필수다. 국가별 감염병 정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전 확인만 해도 위생 관리와 예방 수칙을 미리 숙지할 수 있어 현지에서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은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말라리아가 대표적이다. 해당 질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모기 기피제와 밝은색의 긴소매 옷, 모기장, 방충망 등이 기본 준비물이다. 냉방 시설이 잘 갖춰진 숙소를 고르고, 창문과 문틈에 방충 처리가 돼 있는지도 확인한다.

여행자 10명 중 7명이 겪는 증상이 바로 '여행자 설사'다. 현지 수질이나 조리 환경, 식재료 위생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생수나 끓인 물 외의 음료는 피하는 게 안전하다. 익히지 않은 생야채나 날 음식, 길거리 음식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아이와 고령자, 기저질환자는 설사가 탈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정보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여행지의 의료기관 위치, 진료 가능 언어, 대사관 연락처, 비상 연락망 등을 미리 파악해 두면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국가별 의료 시스템 ▶여행 경보 및 최신 안전 정보 ▶위기 상황별 대응 요령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과 외교부가 운영하는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여행지 병원·119 상담 서비스도 사전 확인

해외에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한다. 간단한 처치에도 수십만원이 들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보험은 상해·질병 치료, 응급 후송, 자기부담금, 보장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다. 휴대품 도난이나 파손 보장 여부도 살펴야 할 부분이다.

장시간 이동에 따른 건강 문제도 간과해선 안 된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하지 정맥에 혈액이 고이면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다. 다리 부종이나 통증,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가 필요하다.

증상이 심하면 폐색전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선 수시로 간단한 운동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가능하면 2시간마다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앉은 상태에서도 발목을 돌리거나 종아리를 움직여준다. 혈류 순환을 돕는 압박스타킹 착용도 효과적이다. 탈수를 막으려면 물을 자주 마시되,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영경 기자

도움말=서진웅 강동경희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희진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질병관리청

인터뷰 김정은 365mc올뉴강남본점 대표원장

"지방 줄기세포 추출해 건강·젊음 설계 … 2030은 항노화 효과 더 우수"

자가 지방 활용, 부작용 거의 없어
주름 완화, 피부 재생 효과 기대

지방이 항노화 분야의 핵심 자원으로 떠올랐다. 과도한 지방은 건강에 해로워 늘 줄여야 할 존재로 여겼지만, 요즘엔 지방 조직에서 뽑아낸 지방 줄기세포가 주요한 노화 예방 무기로 통한다. 지방줄기세포센터를 운영 중인 365mc올뉴강남본점 김정은(사진) 대표원장에게 지방 줄기세포를 활용한 항노화 해법을 들었다.

-요즘 지방 줄기세포가 미용 분야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뭔가.

"지방 줄기세포는 자가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말한다. 줄기세포는 조직의 재생을 돕고 원래 있던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지방은 줄기세포 수율이 골수(뼛속 조혈기관)나 혈액보다 월등히 높다. 지방은 줄기세포의 근간으로 골수의 약 500배, 제대혈(신생아 탯줄·태반 혈액)의 약 2만5000배 많은 줄기세포를 함유한 것으로 보고된다. 이젠 지방이 건강과 젊음을 설계하는 중요한 의료 자산이 되고 있다."

-지방 줄기세포는 어떻게 얻나.

"먼저 첨단 재생의료 기술을 적용한 지방 흡입용 용액을 사용해 복부, 허벅지 부위의 지방세포를 추출한다. 그런 다음 이 지방세포를 세척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뒤 콜라겐 분해 효소를 사용해 줄기세포와 재생 세포가 혼합된 성분인 기질혈관분획(SVF·Stromal Vascular Fraction)을 분리해낸다. 365mc는 자체 개발한 지방추출주사인 람스를 활용해 양질의 지방세포를 뽑아내는 노하우가 있고, 자회사인 모닛셀은 저독성 효소와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통해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고품질의 줄기세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술력을 갖췄다."

-항노화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노화는 결국 세포가 늙는 과정이다. 그런데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이미 노화한 세포를 자극해 다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화를 완전히 거스를 순 없어도 지방 줄기세포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노화 진행 속도를 조금씩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피부 진피층에 지방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켜 탄력 개선과 주름 완화, 피부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처 회복 속도도 빨라진다. 지방 이식을 진행할 때 줄기세포를 함께 주입할 경우 영양소·산소 공급이 활발해져 조직의 생존을 돕는다.

그러면 이식 지방의 생착률이 높아져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유지할 수 있다. 지방 흡입 후엔 피부 탄력을 회복하는 데 좋고, 부기·멍 등의 회복 부작용 발생을 줄여준다. 특정 부위 윤곽을 미세하게 보정하는 데도 쓰인다."

-지방 줄기세포를 언제부터 활용하면 좋을까.

"사실 나이 들수록 줄기세포 수가 줄고 활성도 역시 떨어진다. 20·30대 땐 줄기세포를 많이 확보할 수 있고 활성도도 높기 때문에 시술 효과가 더 뛰어나다. 이는 탄탄한 피부 구조와 볼륨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줘 주름·처짐 같은 노화의 징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면 젊고 생기 있는 모습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돼 진정한 항노화에 가까워진다. 실제 시술 경험을 보면 자연스러운 피부 재생과 탄력 개선 효과로 환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줄기세포는 장기 보관도 가능하니 젊을 때부터 보관해 두면 좋다."

-주의할 점은 없나.

"지방 줄기세포는 자가 조직을 활용하는 방식이라 면역 거부 반응과 전신 부작용 우려가 거의 없다. 다만 면역력이나 혈관 건강이 좋지 못한 암 환자나 심혈관계 질환 환자, 중증 만성질환자는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게 좋다. 시술할 의료기관을 찾을 땐 양질의 지방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지방 추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있는 곳인지, 또 줄기세포 추출 방식이 전문적인지 확인할 것을 권한다."

-아직 널리 확산하진 않았는데.

"지방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다. 단독 시술보단 실 리프팅, 지방 이식 등 기존 시술과 결합해 그 효과를 향상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60대가 치매 예방 골든타임 … 두뇌 영양소 보충해 기억력 감퇴 막아야

뇌 활성 돕는 '포스파티딜세린'

대두에서 추출 건강기능성 원료
미국 FDA·식약처서 인정받아
저하된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

국내 치매 환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한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한 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는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치료를 받더라도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정도에 그친다. '치매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그러나 상당수가 '치매는 70세 이후에나 걱정할 병'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뇌는 60세 이후부터 빠르게 노화한다. 60대는 노화가 진행하면서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로, 뇌 건강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으로 꼽힌다. 이때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노년기 뇌 건강 상태가 결정된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끼기 시작한 순간이 치매를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치매는 환자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증상이 악화하기 전부터 뇌 건강을 관리하며 대비해야 한다.

뇌의 신호 전달, 뇌세포 생존에 관여

최근엔 두뇌 영양소로 알려진 '포스파티딜세린'이 주목받고 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의 신경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뇌세포 내막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의 활동을 조절하고, 신경세포 간 연결과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에도 포스파티딜세린의 역할이 크다. 문제는 나이 들수록 포스파티딜세린의 양이 준다는 점이다. 포스파티딜세린 양이 줄면서 신경세포막이 변하고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이 기억력 감퇴와 인지력 저하다.

노화가 진행하면서 포스파티딜세린이 자연 감소하는 만큼 이를 따로 보충해 주는 게 유익하다. 대두에서 추출한 포스파티딜세린은 노화로 감소하는 체내 포스파티딜세린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 기능성 원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두뇌 건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물질로, 노화로 저하된 기억력과 인지력을 개선해 준다.

출처 Gettyimagesbank
스스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낀다면 치매 예방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다.

평균 60.5세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300㎎의 포스파티딜세린을 12주간 투여한 결과 기억력은 13.9년, 학습 능력은 11.6년, 전날 본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은 7.4년, 열 자리 숫자 암기 능력은 3.9년 연장되는 효과를 보였다. 또 경도인지장애 진단 환자 7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단기 기억력, 언어 유창성, 시간·장소 인식 영역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65~78세 노인을 대상으로 포스파티딜세린 300㎎을 매일 12주간 투여했더니 학습 인지력, 얼굴·이름 연계 인식 능력, 안면 인식 능력이 유의하게 개선됐다. 이런 포스파티딜세린의 두뇌 건강 개선 효과는 보통 섭취 후 4~12주 사이에 나타났다. 식물 유래 성분이라 장기 섭취에 대한 안정성도 우수하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지방에 녹는 인지질 성분이기 때문에 섭취한다고 해서 모두 체내에 흡수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을 선택할 땐 포스파티딜세린 성분이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 순도는 얼마나 높은지 따져봐야 한다. 시중에 나온 제품의 포스파티딜세린 순도는 30%에서 70%까지 다양하다. 순도가 높을수록 흡수율이 향상하므로 순도를 최대로 높인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함유량과 순도 높은 제품 선택해야

은행잎 추출물도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원료다. 포스파티딜세린과 함께 섭취하면 기억력 개선을 강화하는 동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잎 추출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터페노이드 성분이 풍부하다. 플라보노이드는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신경세포의 손상과 노화를 억제하고,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춘다. 터페노이드는 뇌의 미세혈관을 확장하고 혈류 개선을 도와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이런 성분 덕에 은행잎 추출물은 뇌세포의 노화와 퇴행을 억제하고 두뇌 혈액순환을 촉진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 뇌세포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활성화를 이끌어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

김선영 기자

명의에게 듣는다 허준 명지성모병원 병원장

우연히 발견한 뇌동맥류, 작더라도 모양 울퉁불퉁하면 '시한폭탄'

뇌동맥류(뇌 동맥의 일부가 약해져 부풀어 오르는 질환)는 파열되기 전까지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다. 대부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뇌동맥류를 발견한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치명률이 25~50%에 이르는 뇌출혈인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이 더 위험하다. 탈수로 인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파열 위험이 커져서다.

서울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의 허준 병원장을 만나 어떻게 하면 이 병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 들었다. 명지성모병원은 전국에서 4곳밖에 없는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 질환 전문병원이다. 뇌동맥류 같은 급성기 뇌졸중 분야의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10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하며 뇌혈관 질환 치료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다음은 허준 병원장과의 일문일답.

-뇌동맥류가 터지면 어떻게 되나.

"수도관이 터졌을 때 물이 뿜어져 나오듯 대량 출혈이 발생해 치명적인 뇌 손상을 유발한다. 뇌는 순두부처럼 부드러운데 물총을 쏘듯 혈액이 뿜어져 나오면 그 부위가 바로 손상된다. 시각을 관장하는 부위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언어 영역이면 말이 어눌해진다. 또 계속된 출혈로 좁은 공간에 혈액이 차면 뇌압이 높아져 그 압력으로 뇌세포가 괴사한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심하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를 발견하면 바로 제거해야 하나.

"발견된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성부터 분석한다. 뇌동맥류가 있다고 모두 터지는 것은 아니다. 풍선처럼 뇌혈관이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발견된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터질 확률은 연간 1% 남짓이다. 환자의 나이, 동반 질환, 두통·복시 등 신경학적 증상, 뇌동맥류의 크기·위치·모양 등에 따라 달라진다. 크기가 2㎜로 작더라도 모양이 울퉁불퉁하면 터질 수 있다. 파열 위험성이 낮으면 별도로 치료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뇌혈관 CT 등 검사를 하면서 상태 변화만 관찰한다."

참고로 뇌동맥류는 크기가 클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뇌 앞쪽보다 뒤쪽에 생겼을 때 파열 위험이 크다. 특히 거대 뇌동맥류는 파열 가능성이 30~50%로 높다. 최근엔 기존 방식으로 치료가 어려운 크기의 거대 뇌동맥류도 혈류 변환 스텐트(Flow Diverter)를 이용해 치료한다.

-파열 위험성이 낮아도 언제 터질지 몰라 불안한데, 그냥 치료하면 안 되나.

"뇌동맥류는 치료를 위해 부풀어 오른 뇌혈관까지 접근해야 하는 만큼 수술의 위험이 다소 있다. 막연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파열 위험이 낮은 상태라면 정기적으로 추적해 살핀다. 뇌동맥류 발견 첫 3년은 매년 살피고, 상태가 안정적이면 2~5년마다 추적 관찰한다. 뇌동맥류로 진단받은 환자 10명 중 9명이 그렇다."

-뇌동맥류로 인한 두통은 무엇이 다른가.

"의학 교과서에서는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하거나 번개가 치는 듯한 통증'으로 묘사한다. 한 번 겪으면 절대로 잊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요 며칠 머리가 띵하다는 식이 아니다. 어제 아침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말한다."

-치료는 어떻게 이뤄지나.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외과적 개두술로 뇌동맥류를 클립으로 집어 혈류를 차단하는 뇌동맥류 결찰술이다. 둘째, 허벅지 등에 위치한 대퇴동맥으로 미세 카테터를 넣어 치료하는 혈관 내 치료다. 뇌동맥류의 크기, 주변 정상 혈관과의 관계,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 치료법을 정한다. 파열 전 치료하면 90% 이상 후유증 없이 일상에 복귀한다."

-기존에는 뇌동맥류를 클립으로 집는 클립결찰술로 주로 치료했는데.

"요즘엔 최소침습적 접근 방식인 혈관 내 치료를 우선 고려한다. 뇌혈관이 동그랗게 부풀어 오른 주머니 부위에 백금 코일을 가득 채워 넣어 뇌동맥류가 더 커지는 것을 차단하는 코일링 기법이 대표적이다. 뇌동맥류의 크기가 크다면 부풀어 오른 부위 뇌혈관에 파이프 모양의 촘촘한 그물망 스텐트를 삽입하기도 한다. 코일색전술 같은 혈관 내 치료는 클립결찰술보다 회복이 빨라 입원 기간이 더 짧다. 일상 복귀도 빠르다. 아무래도 클립결찰술은 두피를 째고 두개골을 여는 수술이라 환자가 부담을 느낀다."

권선미 기자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치매 ◆어지럼증 ◆손발 저림
◆뇌졸중(중풍) ◆이명 ◆감각이상
◆파킨슨병 ◆불면증 ◆보톡스
◆두통 ◆수면질환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건강 칼럼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긴 환자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69세의 남자 환자가 걸음걸이가 불편해진다는 이유로 필자를 찾아왔다. 환자는 약 2-3년 전부터 보행에 문제가 시작되어 자주 넘어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걸음걸이가 느려지기 시작하였으며, 돌아서는 동작에서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보행이 불편해진 얼마 후 환자는 말하는 것에도 문제를 느꼈는데, 어느 순간 부턴가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가 생겼으며, 또한 음식물을 삼키거나 물을 마시는데 목에서 자주 걸리고 입주위에 침을 자주 흘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환자의 동작은 매우 느려서 일상 생활을 하는데 매우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주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약 1년 전부터는 환자는 밝은 빛에 매우 민감해져서 눈부심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눈물

또한 매우 자주 나온다고 하였다. 환자는 특히 책이나 신문 등을 읽는데 매우 어려워 졌다고 했는데 페이지의 활자를 따라 보는데 매우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하였다.

진찰시 환자는 인지 기능 중 특징적으로 실행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었으며, 신경학적 검사 상에서 안구 운동의 이상이 관찰되었다. 전두엽 실조 증상과 더불어목 근육의 경직이 있었으며, 손가락 및 발가락의 미세 운동의 장애가 보였다. 특히 환자의 보행은 매우 특징적으로 회전시 문제가 나타나는것과 위치반사능력의 감소가 현저히 관찰되었다.

환자의 상태는 '리차드슨 증후군'이라는 특징적인 안구 운동 이상과 더불어 조기의 보행장애로 시작되는 파킨슨 증후군의 하나로 '진행성 상부핵 마비'라는 질병의 한 형태로 진단할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환자에게 이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치료를, 진단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어서, 이후 환자 증상의 상당한 호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 질병의 다른 이름은 '스틸-리차드슨-올스제프스키 증후군'으로, 이는 원래 다름아닌 이 질병이름에 포함된 세사람의 신경내과 의사들이 필자의 환자와 증상이 유사한 8명의 환자들을

1963년 미국 신경내과 협회 모임에서 처음 보고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 질환은 특징적인 파킨슨 증후군의 한 형태로, 오늘날 흔히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진 '진행성 상부핵 마비'라는 신경계 질환의 한 형태이다. 진행성 상부핵 마비라는 질환에는 현재 적어도 5가지 이상의 주 형태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상담 문의: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합성 니코틴 규제, 누가 깃발을 들 것인가

전자담배 유행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남성 모습. [연합뉴스]

담배 몸에 해로운 건 다 알지만
규제 못하는 건 관습·세수 탓
전자담배, 제도권 밖에서 급증
합성 니코틴 시장 규제 시급해

몸에 덜 해로운 담배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담배는 무조건 유해하다. 담배 추출물인 니코틴은 17세기 이후부터 300년 넘게 살충제로 사용되었다. 니코틴이 독극물로 이용된 첫 사건이 발생한 것은 1850년이다. 파산 후 급전이 필요했던 벨기에 백작 보카르메와 그 아내가 처남에게 니코틴을 강제로 먹여 살해한 것이다. 니코틴은 60㎏ 성인이 60㎎을 먹으면 반 이상이 사망한다. 참고로 성인용 타이레놀 1정이 500㎎이다. 담배 한 개비의 니코틴 함량은 0.05~0.25㎎이며, 이 중 약 10~30%가 흡연자의 몸에 흡수된다. 하루 한 갑씩 10년을 흡연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니코틴의 짧은 반감기(약 2시간)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고 무해한 것은 아니다. 담배에는 비소·카드뮴·벤조파이렌·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약 7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담배를 피울 때는 일산화탄소와 타르도 발생한다.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유행어로 1980년대 우리나라 방송계를 평정했던 이주일님이 60세에 폐암으로 생을 마감하며 남긴 유작은 금연 캠페인이었다. 그는 담배를 하루에 두 갑씩 피웠다고 한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의 안타까운 외침에도 담배시장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오랜 기간 일반인들 사이에서 기호품으로 사용된 관습 때문에 알코올·카페인과 함께 중독성 화학물질 규제에서 제외되었으나, 니코틴 의존성은 마약인 모르핀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담배 소비 주는데 전자담배는 늘어

정부가 담배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담배에는 총 여섯 가지의 세금과 부담금이 적용된다. 애연가가 애국자일 만큼 담배는 강력한 국가 재원인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담배 총 판매량은 2년 연속, 궐련 담배 판매량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전자담배 시장은 전년 대비 8.3% 증가해 전체 담배 시장의 18.4%를 차지했다. 흡연의 3대 유해요소 중 일산화탄소와 타르가 발생하지 않아 '보다 건강하게 담배를 즐길 수 있다'는 광고로 흡연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해소한 결과다. 세제당국의 입장에서는 반갑지만은 않다. 4500원인 궐련 담배 한 갑에 포함된 총 세금은 약 3318원(약 74%)이었지만,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이보다 320원가량 적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독성이 적다는 것은 진실일까? 나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과제의 심사 요청을 받았다. 가열담배 배출물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법을 개발하는 과제였다. '이런 연구는 가열담배 제조업체가 제품개발 과정에서 수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심사하는 내내 머리를 맴돌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제조된 담배의 유해성 심사 결과는 담배제조업 허가와 무관하다. 담배사업법은 고품질 담배를 일정한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담배 제조를 허가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제품이 다양해졌다. 마치 아이스크림을 고르듯 니코틴 함량과 맛도 취향대로 고를 수 있다. 그래서 더 고민스럽다. 맛과 향을 내는 물질 또한 화학물질이고, 배터리를 이용한 가열 과정에는 촉매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국민 건강 지키는 건 국가 의무

최근 정부는 세수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성 니코틴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 니코틴은 그 기원에 따라 천연과 합성으로 분류되는데, 현행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실험실에서 합성된 니코틴은 현행법상 담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합성 니코틴 규제가 시급한 이유는 따로 있다. 정부가 올해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배 판매업자는 2년에 한 번씩 판매 중인 제품을 정부가 지정한 분석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해당 제품에 함유된 유해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만 한다.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기간이 길수록 질환 발생 가능성은 커진다.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최상위 의무이다. 천연이든 합성이든 구조가 같다면 그 물질이 체내에서 결합하는 수용체나 작용 기전은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Special 8월 SUMMER SALE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점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백돌이 온열지압 **온열 지압침대**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등 다양한 기능 탑재

무이자 할부 최고 36 개월

↑체온 1C상승하면 ↑면역력 40% 상승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GH 온열 지압 침대의 특징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날 제품

102개의 지압봉 + 2 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온열 지압 카우치

▶온열 지압 상감 평상

본토 흙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흙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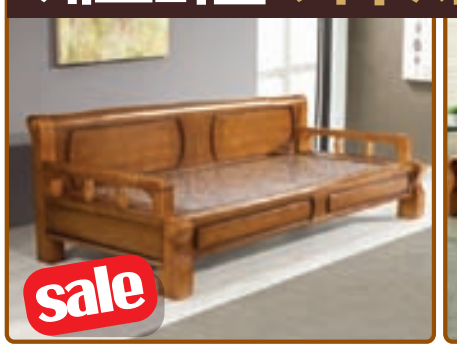
ECO

~~$2,900~~ $2,300

~~$3,000~~ $2,500

본토흙침대 100% 생황토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장윤정의 흙표 흙침대

흙표 흙침대 워싱턴 대리점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흙표 흙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흙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솔잎뜸질 찜질효과

흙표 흙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흙표 흙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퀸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전면: 고급 인조 양털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흙표흙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딘 지정 대리점

월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제작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5 3중 고온 안전처리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돌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로 건강을 채우고 피로를 푸세요~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닥터Q
몸속까지 시원한 수직 지압 마사지!
Made in KOREA
1/4마력!
강력모터의 파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의 특징!
하루에 5분만 사용하셔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십견, 관절통증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 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EYE MASSAGER
For your eye health
누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피로한 눈·뻑뻑함
눈꼽낌·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충혈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129
·에어백 마사지
·Shiatsu 지압
·온찜질 / 진동
·USB 충전
·내장 스피커

★히트상품★
마사지 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꿔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쉴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율 1위 차지

일월 개화몽 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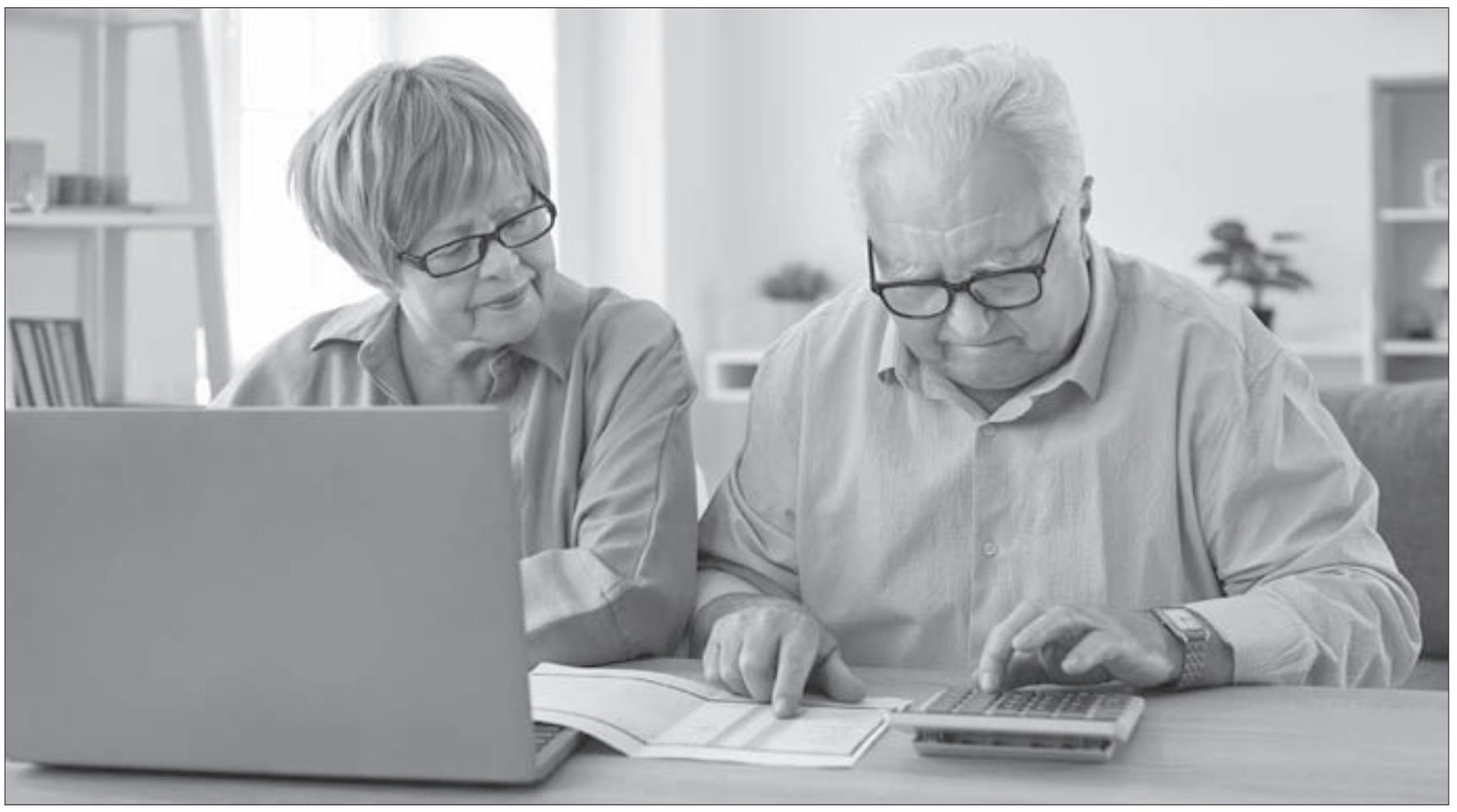
기모극세사 일월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 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50세 이상 은퇴자 평균 부채 13만4950달러



연방준비제도의 소비자금융 조사와 미국은퇴자협회 조사 결과 65세~74세의 평균 부채가 13만4950달러에 달했다.

50세 이상의 상당수가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켓워치 가이드팀이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소비자금융 조사와 미국은퇴자협회(AARP)의 올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의 75%가 부채를 갖고 있었다. 은퇴 연령층인 65세~74세의 평균 부채는 13만4950달러에 달했다. 65세 이상의 평균 미지급 의료비는 1만3800달러였다.

1989년 55세 이상 가구의 부채 중간값은 2만2000달러 미만이었다가 수십 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55세~64세의 부채 중간값은 10만5170달러로 급증했다가 금융위기 이후 다소 감소한 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부채 중간값은 9만 달러였다.

AARP의 조사에서 50세 이상 연령층의 46%는 크레딧카드 빚을 갖고 있었다. 이들 중 87%는 카드 빚의 원인으로 예기치 못한 지출을 꼽았다. 연방준비제도 조사에 따르면 55세~74세의 크레딧카드 빚 중간값은 3500달러로 전체 연령대의 중간값인 2700달러보다 많았다.

의료비 부담도 심각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2023년 센서스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의 7%인 약 390만 명이 밀린 의료비를 안고 있었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98%로 높았지만, 미지급 의료비는 2019년 평균 1만1700달러에서 2020년 1만3800달러로 증가했다. 전체 미지급 의료비 규모는 2020년 538억 달러로 1년 새 20%나 급증했다. 의료비 미납 비율은 여성이 8%로 남성의 6%보다 높았다.

AARP의 2023년 보고서에서 "생계를 위해 부채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한 50세 이상은 80%가 넘었다. 은퇴와 연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직원복리연구소(EBRI)가 지난해 실시한 은퇴 조사에서 은퇴자의 31%는 "지출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의 17%, 2022년의 27%와 비교해 상승한 수치다.

최근 다시 증가세 돌아서
65세 이상 밀린 의료비
평균 1만3800불로 늘어
50세 이상 46%가 카드 빚

연방준비제도(Fed)의 최신 조사에서 고령층의 평균 부채는 9만5000달러 17만2000달러 수준이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모기지 평균 부채는 13만8700달러18만8400달러였다. 여기에는 홈에퀴티 대출도 포함됐다.

AARP 조사에서 50세 이상 부채 보유자의 61%는 부채를 문제로 인식했으며 16%는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다. 이 중 47%는 부채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으며, 유형으로는 스트레스(34%)와 재정 불안감(28%), 우울감(19%) 등이 꼽혔다.

크레딧카드 부채를 가진 고령층 가운데 절반가량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안정 상태라고 밝혔지만, 저소득층이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이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AARP는 크레딧카드 부채가 있는 고령층 중 체계적인 상환 계획을 세운 사람은 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채가 있을 경우 재정 전문가와 상담해 맞춤형 부채 관리 전략을 세우라고 조언한다. 부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액 관리다.

소셜연금 초과지급 회수 이의 제기 가능

사회보장국(SSA)이 지난달 24일부터 소셜연금 초과지급액 회수에 들어갔다.

SSA는 4월 25일부터 압류 사전 통지를 시작했다. 이번 압류 조치에는 소셜연금 수령자가 가운데 100만명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모두가 초과지급액을 전액 반환하는 것은 아니다. 면제를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초과 지급 회수 면제 요청은 초과 지급이 수령자의 과실이 아니고 회수되면 재정적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양식 SSA-632BK를 작성해 제출하면 면제를 심사한다.

초과지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거나 초과지급액이 잘못 계산됐을 경우에는 양식 SSA-561를 사용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초과지급 사실은 인정하되 회수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양식 SSA-634를 작성해 지출 내역을 근거로 재정적 곤란을 입증하면 월별 압류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거나 분할 상환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초과지급은 소셜연금에서 오랜 숙제였다. 2023 회계연도에만 SSA는 230억 달러 규모의 초과 지급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헬스 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초과지급 수령자는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초과지급은 수령자가 소득을 제때 갱신하지 않거나 SSA의 행정 착오 때문에 발생한다.

SSA는 팬데믹 이전에는 수급자의 연금 전액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초과지급액을 회수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에는 연금의 10% 압류로 낮춰졌다. 지난해 3월에는 SSA가 다시 100%를 압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반발이 거세지자 4월부터 50%로 낮췄다.

소셜연금 2032년 4분기 고갈, 새 분석 나와

소셜연금 고갈 시점이 사회보장국(SSA)이 예측한 2033년 1분기보다 앞당겨진 2032년 4분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론 와이든(민주당, 오리건주) 연방 상원의원의 요청을 받은 SSA 수석 보험계리관실은 입법 영향 평가에서 고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은 기존 전망보다 한 분기 이른 2032년 4분기에 고갈될 수 있다고 밝혔다. OASI 신탁기금은 은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소셜연금의 핵심 재원이다.

조기 고갈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OBBBA)에 따라 한시적인 고령자 소득공제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SSA의 캐런 글렌 수석 보험계리관은 6일 와이든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소셜시큐리티 급여에 대한 소득세 수입 신탁기금으로 직접 귀속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소셜시큐리티는 노령·유족 보험(OASI)과 장애 보험(DI) 두 개의 신탁기금으로 운영된다. 전체 재정 상태를 평가할 때는 두 기금을 통합해 분석한다.

OASI와 달리 장애 보험 신탁기금은 앞으로 75년간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삐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코너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위튼 한아름(H-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챈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아름(H-mart)과 챈틀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옛것인 듯 옛것 아닌, 그래서 더 끌린다

관객 몰리는 현대적 전통 공연
전통춤에 역동성 '일무' 매진 행렬
효녀의 틀 걷어낸 '심청'도 채비
배우·무용수 응원 팬덤까지 등장

'정적인 제례 의식에 더한 칼 군무, 애절한 판소리 속 용궁 로맨스 걷어낸 새로운 심청.'

현대적 감각을 더한 전통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시대 흐름과 궤를 맞춘 변주를 시도하면서도 한국 전통 예술이 품은 여백과 절제, 해학 등의 미덕을 극대화한 작품들이다. 배우나 무용수들을 응원하는 '팬덤'의 등장도 전통 공연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무용단은 오는 21~24일 '일무(佾舞)'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올린다.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유산인 '종묘제례악'의 의식무인 '일무'를 모티브로 삼았다. 일무는 여러 사람이 줄을 지어서 추는 춤이다.

정적인 한국적 춤에 역동성을 더한 이 공연은 2022년 초연해 올해 네 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세종문화회관 대표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지난 2023년 뉴욕 링컨센터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일무'를 두고 "변증법적 조화와 증식을 보여준다"라고 평했다.

3000석이 넘는 대극장에서 선보이는 공연이지만 올해 티켓도 이미 동난 상황이다. 이번 공연은 기존 작품에 영상과 조명 디자인을 보강했다는 게 무용단 설명이다.

창극 '심청'은 주목받는 또 다른 전통극이다. 국립창극단이 19세기에 완성된 판소리 '심청가'를 재해석했다. 음악은 판소리 고유의 원형을 유지하되 '효녀'라는 틀을 걷어낸 새로운 '심청'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오는 13, 14일 '20205 전주 세계 소리 축제'에서 먼저 선보인 후 다음 달 3~6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한다. 일부 회차 VIP석은 이미 매진됐다.

관객의 사랑을 받는 전통 공연은 꾸준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국립정동극장에서 공연한 연희극 '단심(單沈)'은 판소리 심청가의 원전이었던 고전 설화 '심청'을 재해석했다. 역시 '효'를 넘어선 새로운 심청을 한국 무용으로 구현했다. 데뷔 40년 차 배우 채시라가 처음 출연한 무용극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특별 공연이 열린다.

배우 채시라(사진 오른쪽)가 무용수로 데뷔한 연희극 '단심' [연합뉴스]

속도감 넘치는 한국 무용을 펼친 서울시무용단의 신작 '스피드', 러시아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 『주인과 하인』을 소리꾼 이자람이 판소리로 각색한 '눈, 눈, 눈'도 올해 상반기 객석을 가득 채우며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전통 공연이다.

이들 작품은 동시대 관객의 눈높이에 맞게 현대적인 해석을 가하면서도 한국 전통 예술이 지닌 고유의 가치와 장점을 제대로 살려내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 출신 금융인이자 방송인으로 '일무' 브랜드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마크 테토 TCK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는 '일무'에 대해 "한국의 미학에는 여백과 여정, 그리고 절제가 존재한다"라며 "'일무'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말했다.

'심청' 제작진은 이 작품이 판소리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심청'의 연출과 극본을 맡은 요나 김은 이 작품을 '판소리 씨어터'로 정의하며 "판소리라는 장르는 외국에서도 잘 알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굳이 앞에 '코리아'를 붙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전통 공연에서 아이돌 못지않은 '팬덤'이 등장한 것도 인기 몰이의 한 요소라는 해석이 나온다. '심청'의 경우 '국악계 아이돌'로 불리는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출연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방송된 경연 프로그램 '스테이지 파이터'를 계기로 많은 팬을 확보한 기무간, 김규년, 최호종과 같은 한국 무용수가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 무용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무간의 경우 오는 11월 6일~9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열리는 서울시무용단 작품 '미메시스'에 출연한다. 서양 철학 개념인 미메시스(모방)를 바탕으로 한국 전통춤의 본질을 찾는 작품이다.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임희윤 문화평론가는 "클래식 분야에서 조성진, 임윤찬이 등장하며 관객층을 넓힌 것처럼 창극, 한국무용 등 전통 분야에서 팬덤층이 생기며 전통극에 대한 선입견이 벗겨지는 분위기"라며 "관객 저변이 넓어짐에 따라 그간 주목받지 못했으나 출중한 실력을 지닌 창극 배우나 한국 무용수 등의 기량이 알려지고, 그만큼 전통 예술에 관심이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할머니들 기억하려, 8년 만에 재개봉합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 강지연 대표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다룬 영화
"젊은 관객들 많이 봤으면 좋겠다"

"당시엔 할머니들을 위로해드리려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분들 이야기를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재개봉을 결정했죠."(강지연 대표)

광복 80주년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14일)을 맞아 13일 재개봉하는 한국 영화가 있다. 나문희, 이제훈 주연의 코미디 영화 '아이 캔 스피크'(2017)다. 개봉 당시 약 320만명의 관객과 만났던 이 영화는 2007년 미국 하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실화를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다뤄 호평 받았다.

이 영화의 숨은 일등공신이 제작사 대표인 강지연(50) 씨다. 1999년 영화 마케팅으로 영화계에 입문, 11년간 영화 홍보 업무를 해 온 강 대표는 2014년부터 영화사 시선의 대표로 일했다. 지난 10일 재개봉을 기념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배급사 마노엔터테인먼트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강 대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개봉을 한 데에 대해 "일본의 사과도 필요하지만 그전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뤄낸 성과, 우리가 이겨낸 통쾌한 사건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는 영화 기획 계기에 대해 "영화 제작사 기획실에서 일할 때, 새로운 시나리오 작품들을 검토하는 일을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많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적나라하게 담긴 시나리오를 수차례 검토하다 직접 해보자는 결심이 섰다. "대중영화로서 관객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그렇게 2008년부터 '아이 캔 스피크' 준비를 시작했다.

강 대표는 "문화의 힘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정현 기자

진정성 가득한 강지연 대표의 기획과, 불편하지 않은 코미디를 만들어내는 김현석 감독의 연출, 거기에 배우들의 매력적인 연기가 만나 '아이 캔 스피크'가 탄생했다.

영화는 유쾌한 '민원 왕 할머니' 나옥분(나문희)을 사랑스럽게 묘사하는 것에 먼저 집중했다. 마을의 불법행위를 씩씩하게 잡아내고, 영어 회화를 배우러 다니는 옥분은 자신과 비슷한 '원칙주의자'이자 민원담당 공무원인 박민재(이제훈)와 계속해서 부딪힌다. 옥분과 민재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옥분의 과거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이 등장한다.

영화 개봉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2017년 36명에서 현재 6명으로 줄었다. 2023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또 다른 승리를 일궈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실제 배상을 받거나,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일은 전망이 불투명하다.

매해 광복절마다 "(광복절 특집 방영으로) '아이 캔 스피크'를 이제야 만났다"는 반응을 듣는다는 강 대표는 "이번 재개봉을 통해 새로운 관객들, 특히 젊은 분들이 영화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주인공인 영화가 아니더라도, 계속 이 일을 환기할 수 있는 작품들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혜리 기자

‘양궁농구’ 한국, 조별리그 뚫었다

FIBA 아시아컵 오늘 괌과 8강 결정전

‘죽음의 조’서 2승1패로 2위 차지
여준석·이정현 부상으로 빠졌지만
안준호 감독, 외곽포 전략 앞세워
MVP 유기상 3점슛 8개, 팀은 22개

한국 농구대표팀 이현중(오른쪽)이 아시아컵 레바논전에서 슛을 쏘고 있다. 그는 28점을 몰아치며 8강 결정전 진출을 이끌었다. [사진 FIBA]

레바논전에서 3점슛 8개를 성공한 유기상(가운데)이 경기 MVP에 뽑혔다. [사진 FIBA]

한국이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았다. A조 2위를 확정한 한국은 B조 3위 괌과 8강행을 다툰다.

FIBA 랭킹 53위 한국은 11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2025 FIBA 아시아컵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레바논(29위)을 97-86으로 물리쳤다. 1차전에서 호주(7위)에 61-97로 패한 뒤, 2차전에서 카타르(87위)를 97-83으로 꺾은 한국은 조별리그 2승1패로 조 2위를 차지했다. 디펜딩 챔피언 호주, 직전 대회(2022년) 준우승팀 레바논, ‘다크호스’ 카타르와 이른바 ‘죽음의 조’에 속했던 한국은 이로써 1차 목표인 조별리그 통과에 성공했다. 16개 참가국은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이번 대회에서 조 1위는 8강에 직행하고, 조 2, 3위는 8강 결정전을 치른다. 12일 한국과 8강 진출을 다툴 괌은 FIBA 랭킹 88위다.

한국은 이날 레바논전에 팀의 주축인 여준석(23·시애틀대)과 이정현(26·소노)이 무릎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악재를 맞았다. 골밑 공격을 주도하는 여준석의 결장은 한국에 치명적 손실이어서 레바논을 맞아 고전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백전노장 안준호(69) 감독은 여준석의 공백을 ‘양궁 농구’(3점슛 위주 운영)로 메우는 전술을 꺼내 들었다. 이번 대회에서 고감도 슛 감각을 보여준 이현중(25·나가사키)과 유기상(24·LG)을 전면에 내세운 것. 안 감독 카드는 적중했다. 한국은 1쿼터에만 외곽포 7방을 꽂아넣으며 26-17, 9점 차로 앞섰다. 이현중이 3점슛 3개, 유기상이 2개를 터뜨렸고, 양준석(24·LG)과 정성우(32·한국가스공사)도 하나씩 보탰다.

경기 주도권을 잡은 한국은 2쿼터 이후에도 쉴 새 없이 3점포를 쏘아 올리며 레바논을 몰아붙였다. 한국은 이날 3점슛 38개를 던져 22개를 성공시켰다. 팀 3점슛 성공률 57.9%로, 2점슛(46.2%)과 자유투(53.1%)보다 높았다. 유기상은 3점슛 12개를 던져 8개를 성공하는 등 28점 3스틸을 기록해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이현중은 3점슛 7개 등 28점 6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맹활약했다.

안 감독은 “대회 전에 약속한 대로 ‘죽음의 조’에서 탈출했다. ‘원팀 코리아’ 정신으로 싸웠더니 특유의 스피드, 압박 수비, 외곽슛이 살아났다”고 밝혔다. 대회 전 선수들에게 “살아남아 전설이 되자”고 주문했던 안 감독은 “이제 녹아웃 스테이지(토너먼트)라서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존경심을 갖겠다. 또 심장은 뜨겁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해서 경기에 임하겠다”며 “전설이 돼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중은 “여준석·이정현의 부재로 많은 분이 전력상 열세라고 생각했을 텐데, (5명이 뛰는 경기에) 12명의 선수가 뽑힌 이유가 있고 어떤 선수가 들어와도 잘할 거라고 믿었다”고 팀 분위기를 전했다.

피주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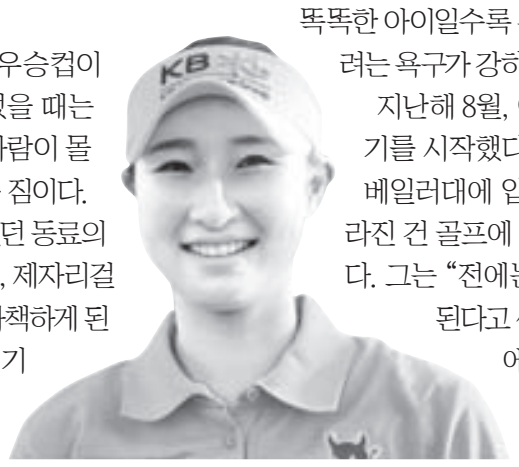
“골프를 즐기고 싶어요” 행복 찾아 떠난 천재소녀

최연소 골프 국가대표 출신 이정현
14세 때 여자아마추어선수권 제패
성적 부진 겪으며, 압박감 심해져
작년 홀로서기 “공부·여행 등 힐링”

13살이던 2019년, 이정현(19)은 역대 최연소로 여자 아마추어 골프 메이저대회(송암배)에서 우승했다. 2020년에는 한국여자아마추어선수권을 제패하며 최연소 국가대표가 됐다.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을 뒤이을 듯한 기세의 그는 어느 순간 골프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최근 그를 서울 노들섬에서 만나 근황을 들었다.

이정현은 사실 장타자이면서 쇼트게임도 완벽했다. 새벽에 모래사장을 달렸고 아침·저녁으로 줄넘기 1000개씩 할 만큼 의지도 굳었다. 주변에서 “(정현이 아버지는) 한국 골프 대디 중 가장 헌신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그는 “365일, 24시간 내내 아빠와 붙어 지냈다. 뉴질랜드에서 1년여간 훈련할 때는 아침·저녁 식사를 챙겨주셨고, 학교에 데려다주셨다. 그런데 나중에야 알았다. 영어 한마디 못하던 아빠는 그곳에서 공황장애까지 겪으셨더라”라고 전했다.

이정현은 “중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가 된 뒤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돌이켰다. 고교 2학년 때 가장 힘들었다. 프로대회에서도 중상위권이던 그는 그 무렵 아마 대회에서도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 우승컵이란 게, 해가 떴을 때는 빛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무거운 짐이다. 자신보다 못했던 동료의 성장세를 보며, 제자리걸음인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 과도한 조기 성취, ‘오버페이스’의 그림자다. 그는 “나를 도와준 분들께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아버지는 저만을 위해 살았던 분이었으니까”라고 말했다. 소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똑똑한 아이일수록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지난해 8월, 이정현은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미국 텍사스주 베일러대에 입학했다. 가장 달라진 건 골프에 대한 마음가짐이다. 그는 “전에는 재미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고통 속에서 버텨야 남보다 잘할 수 있다고 믿었다”며 “어느 순간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생겼고, 골프는 남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 즐기며 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불안은 아직 남았다. 다만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는 “골프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며 힐링한다. 공부도 하고, 춤도 추고, 여행도 다녔다”며 “오늘 한강을 처음 봤는데, 마음을 풀어놓으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올해 이정현은 UCLA로 대학을 옮긴다. 로스앤젤레스에는 한국계 코치와 한국 음식이 있고, 손흥민까지 왔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OOL HOT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AWARDED

LENNOX Carrier TRANE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9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최신형 X-Ray 완비/교정 및 물리치료/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ra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고용 변호사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Super Lawyers
Peter K. Hwang
SELECTED IN 2017
THOMSON REUTERS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킴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T. 410.772.232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8월 구인광고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매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571-212-3082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날)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요!$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 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급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세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구 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젼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 Upper Marlboro MD
베네핏 :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권 :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젼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패니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심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DC
메일: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파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926-3200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 아웃 같이 일하실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환영
443-991-9331

엘리컷시티 Cafe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일요일 가능한 분, 유/무 경험자
443-386-0515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엘리컷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장, 캐쉬어를 모십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풀/파타임, 베깅만 하실분 ,영어 가능하신 분
410-926-3200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염가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싱글/타운 방 렌트

메릴랜드 한오버 이층방 & 베이스먼트 방렌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410-917-1262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층방 렌트, 유포, 가구일체, 교통편리, 직장인 남자분 환영
443-631-7866

495와 95번이 만나는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싱글홈 이층방 렌트, 즉시 입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버튼스빌 198번과 29번이 만나는곳에 위치한 싱글홈 이층방 렌트, 욕실, 냉장고 별도, 인터넷, 가구 완비, 주차장,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240-413-2738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거리 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 방렌트, 넓은 이층방, 인터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뉴그랜드마트 근처, 욕실딸린 큰방 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방 하나 (출입구별도),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안트옆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 $9,500/렌트 :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 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매릴랜드 앨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링/ 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Human Resources Specialist (Dental Offices): Address employee relations issues, such as harassment allegations, work complaints, or other employee concerns. Keep up with EEO and ADA rules. Develop, update or implement personnel policies or procedures, regarding employment, orientation, or evaluation. Schedule or conduct new employee orientations. Provide management with relevant information, training or counseling. Interpret and explain human resources policies, procedures, laws, standards, or regulations. 40 hrs/week. Master's degree in a related fiel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Job Location: Sebastian M Bouroncle DDS-1 PLLC t/a New Smiles Dental at 1900 Optiz Blvd Ste C, Woodbridge, VA 22191

패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타임으로 일 하실분을 모십니다. 캐시어하시면서 기술 배우실분 환영
703-691-1993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젼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 703-225-5500
이메일 지원 :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 Chantilly, VA 20151
시간 : 조정가능 (풀타임)
급여 :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buniversal.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유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employeehire13@gmai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젼트 라이센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 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챈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에난데일 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 (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하실 서버/바텐더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주방 헬퍼해 주실분, 파타임 카운터 케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쉐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타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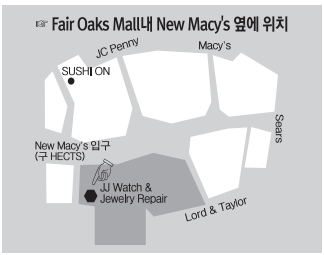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임플란트 •충치치료
•신경치료 •전체/부분 틀니
•교정 •일반치과
•발치 •미용치과
•크라운 •잇몸치료
•임플란트 틀니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일하실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깅 하실 분/
파/풀 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 스토어에서
파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에서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자동차 /정비/바디샵

폴스쳐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 경험자 구함.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청소/기타구인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240-903-0777

싱글/타운홈렌트

애난데일 엔드 유닛 타운홈 스타일 콘도 렌트
방3, 화2, 나무 마루, 세탁기, 건조기, 1,2층
구조, 넓은 리빙룸 $2,500 (물값 포함)
▶703-477-3114

맥클린에 위치한 싱글하우스 전체 렌트하실
세입자를 구합니다.
방 4, 화장실 3, 차고 2, 즉시 입주 가능
571-277-7758

애난데일 중심가 1 에이커 싱글하우스 반 지
하 전체 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세탁
기, 입구 별도, 주차 넉넉, 최근 전부 새로 수
리하였으며, 전화 하면 사진 보여 드림
703-395-4380

브리스토 (게인스빌 옆) 타운 하우스 렌트,
엔드 유닛, 방 3, 화 3.5, 차고 2, 업데이트
된 주방, 세탁기, 건조기, 새 페인트, 넓은 덱,
2013년 지은 새 단지 새 집, $3,2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게인스빌 업데이트된 예쁜 벽돌 타운홈
방 3, 화 4, 차고 2, 탁트인 키친, 새 나무 마루,
새 페인트, 확장형 3층 구조, 가까운 곳에 큰
쇼핑센터, 레스토랑, 그로서리 있음.
$3,2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센터빌 파월 초, 2 car 벽돌 타운하우스 렌트
$3,400 방 3, 화 2.5, 덱, Faircrest, 루트
29/50/286/66/28, 9월1일 입주
▶571-239-6054

패어팩스 Costco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군,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 다수, 콜린 파웰초,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화3.5,2car,전부 마루, 주차 다수
SouthCounty 하이,RT95/395/286/123
3. Ashburn 타운홈 $3,500
방3, 화3.5, 2 car, 주차 다수, Briar Wood
▶571-239-6054

센터빌 롯데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렌트 (옥튼HS)
2100 sqft, 방4, 화3.5, $3200
470-485-1875

챈틀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렌트, Safe Way 건너편, 업데
이트한 밝고 예쁜 콘도, 방 2, 화 1, 새 카펫, 새
페인트, 물값과 개스비 포함 $2,0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업데이트한 밝은 콘도, 엔드 유닛,
방3, 화2, 세탁기, 건조기, $2,5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헌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
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
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1. 옥톤 싱글 $3,600 ,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2 ,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렌트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싱글홈 1층 렌트
방1, 화1, 주방, 여자분 환영 $1,200
즉시 입주 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 순복음 교회 앞 주택 지하 렌트
방2, 화장실, 큰 거실, 부엌, 방 하나 쓰실분
또는 전체 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놓습니다.
출입문 별도, 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13-9080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이층 욕실 딸린 큰
방 하나 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 CVS 근처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
룸/개인욕실/워크인 클로젯/여성분 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애난데일 메시아 장로교회 뒤 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495와 395가 인접한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
한 싱글홈 방렌트,
가구/인터넷/간단한취사, 비흡연자,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 (웨스트스프링필드 하이스쿨 근
처) 워크아웃 타운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가구일체/유포
703-887-8428

애난데일 싱글홈 아래층 495 조지메이슨
6분, 침대/가구/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애난데일 중심가 새로 수리한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방 3, 화 2, 키친, 리빙룸, 입구 별도,
주차 편리
703-395-4380

센터빌 극장 근처 타운홈 방렌트
방, 화장실, 가구, 세탁기, 인터넷, 파킹, 조용
한 여자분/학생, 가능한 잠만 주무실분
571-239-6054

애난데일 H마트뒤 콘도 방1, 화장실1 렌트
인터넷 유포 $800
703-577-3421 (문자요망)

495와 95번이 만나는 메릴랜드 대학 근처
싱글홈 이층방 렌트, 즉시 입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1, 간단 식사,
잠만 주무실분 ,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571-243-6295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포 $1,100
▶301-928-4125

패어팩스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GMU에서 3분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658-1117

센터빌 CVS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애난데일 노바 근처 싱글홈 아랫층 전체 렌
트 방2/새주방/욕실/워크아웃
703-336-3283

에난데일 예촌앞 타운홈 방 렌트, 화장실 딸
린 큰방,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능
703-622-2033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1. 웃슨하이, 프로스트 미들 2025 새싱글
$1,450,000
방5, 화5.5, 차고 2, 5000sqft 모던 디지인
2. 챈틀리 하이 싱글하우스 $1,050,000
방4, 화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
이드, 286/50 Lees corner RD
3.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7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571-239-6054

애난데일 싱글 하우스 $719,000
Braddock/Backlick이 만나는 Giant근처
최고 로케이션, 방3, 화3, 카포치1, 새지붕,
드라이브웨이, sold as is, 동네 시세보다
10만불이상 저렴, 리모델링/투자 가치높음
▶571-239-6054

Alexandria 콘도 $355,000
방2, 화2, Top Floor 엔드 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703-813-8949

Triangle 타운콘도 $429,900
2024년 built, 방3, 화5, 4층 구조, Gagage,
고급스러운 부엌 , 아일랜드, 나무마루, 새 페
인트, 새 덱
▶703-813-8949

1. 센터빌 싱글홈 $770,000
방3, 화3.5,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
2. 패어팩스 싱글홈 $1,005,0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싱글홈 전체 렌트

맥클린에 있는 싱글홈
전체 렌트할 세입자를 구합니다.

방 4개, 화장실 3개, 차고 2개

대사관, 주재원 분들도
환영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

자이언트 부 동 산 제니 지: 571-277-7758
insunchi@yahoo.com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방5, 화3.5, 차고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
▶703-899-8999

애쉬번 타운하우스 매매 $670,000
2012년, 방 3, 화 3.5, 최고 학군, 덜레스 공항
▶571-239-6054

1. 맥클린 콘도 방1, 화1 $300,000 762sf
2. 맥클린 콘도 방2, 화2 $409,000
1,050 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Tysons Galleria옆
▶571-239-6054

1. Falls Church 콘도 매매 $224,900
800 sqft, 전부 리모델링, 방1, 화1, 유틸리티 콘도비 포함, Mosaic, Gallows Rd, 편리한 교통, RT 495/29/50
2.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3.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군,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4.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센터빌 중심에 위치한 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앞 ,1230sqft, 콘도비$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콘도매매 $354,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 룸, DEN1, 넓은 발코니
▶703-813-8949

1. 사우스 라이딩 싱글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패어팩스 타운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 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703-919-0472

1. 패어팩스 새 빌더홈 우슨 학군 싱글홈 $1,900,000
2. 페어팩스 씨티 타운하우스 새 빌더홈 $930,000
▶703-231-5572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덱,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 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린 앤드유닛,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571-239-6054

1. 패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4+1, 차고 2, 패어팩스 코스코 근처에 있는 멋진 싱글홈
2. 패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나무 마루, 넓은 뒷뜰
▶703-899-8999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슴.
2. 매나서스 콘도 $330,000
방2,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레스토랑,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헤어, 네일 & 스파 살롱 사업체 매매
(레스톤 /헌돈 지역)
-$100,000
- 현지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 좋고 지속 성장 가능
- 월 임대료 & 수도세 없음 **
- 6개 헤어 부스 + 2 페디큐어 부스 + 2 네일 테이블 + 1 마사지 룸 + 1 왁싱룸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 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코져 하오니 관심있는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571-212-3082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성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 sf, 29/66, 세븐일레븐옆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지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Ⅰ.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Ⅱ.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Ⅲ.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중고매매/기타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텃밭 공유 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 세일 (센터빌)
다이닝 테이블, 쇼케이스 그림, 유로피안 장식품, 골동품, 청동으로된 인어공주, 자수정 수집품, 강아지 케리어 등등
808-223-4825

1년된 Inokim OX Scooter
공원에서 서너번만 사용해 상태 좋음, 필요하신 분께 저렴하게 드립니다.
703-945-2991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줌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Email : inyeolchoi@hotmail.com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 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오랫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페인팅(In,Out),덱 메인터넌스와 클리닝,샌딩,파워 워시,핸디맨 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모든공사,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 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옴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심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DC
Email: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단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키친 리모델링,온수,히터 디쉬워셔,Disposals,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GAS공사,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Email :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귀국 이삿짐 포장이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귀국, 해외,타주, 시내 이사,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타주,시내이사,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화재,가구,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접(철,스텐,알미늄) /제작및설치(키친후드, 닥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H.P. 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340-5858 (VA)
443 -980- 5858 (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Window/상점,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넷,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 메니져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 · 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AWARDED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덱, 캐비넷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독자가 행복 해진다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 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 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 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쎈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수도꼭지 교체
- 씽크 / 디스포져
- 워러히터 / 물새는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썹펌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703.909.0988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JGL Construction Inc.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팔찌
-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센터빌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a little bit; 잠깐 조금

Debbie and her daughter are in the living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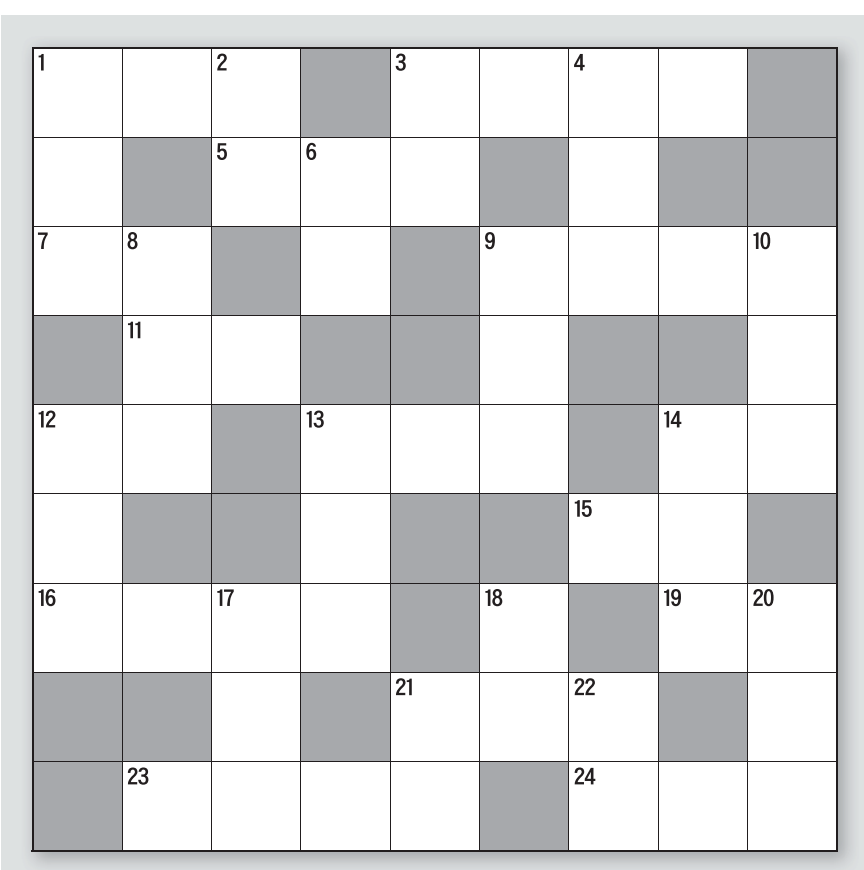
데비 모녀가 거실에서…

Amanda: I'm bored. What should I do?
어맨더: 심심해요. 뭐 할 거 없어요?
Debbie: Send your grandmother an e-mail.
데비: 할머니께 이메일 좀 보내라.
Amanda: I never know what to say to her.
어맨더: 할머니께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Debbie: You can thank her for the birthday present she sent you.
데비: 지난 번 네 생일에 선물 보내주신 거 감사하다고 하면 되지.
Amanda: You're right. It slipped my mind.
어맨더: 맞아요. 깜빡 했어요.
Debbie: And ask her if she wants to come over here for Easter dinner.
데비: 부활절에 저녁 드시러 우리 집에 오실 건지 여쭤보고.
Amanda: I'll do it in a little bit.
어맨더: 조금만 있다 할 게요.
Debbie: Don't put it off! Do it right now.
데비: 미루지 말고! 지금 해.
Amanda: Okay but you are so mean to me.
어맨더: 알았어요. 한데 엄만 나한테 너무 나쁘게 해요.
Debbie: You wanted something to do now do it.
데비: 뭘 하려면 그때그때 해.

기억할만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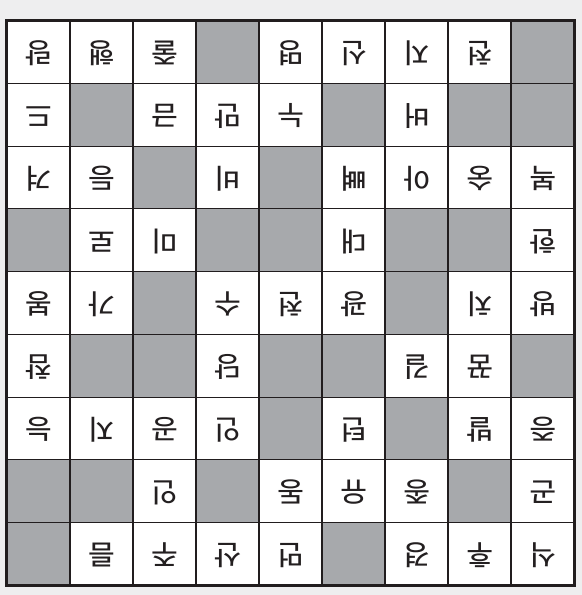
▶ It slipped (one's) mind: 깜빡 잊다.
"I was supposed to mail this package, but it slipped my mind." (이 소포를 부쳐야 했는데 깜빡 했네.)
▶ come over: (누구에게) 오다.
"If you come over after school, we can play video games." (학교 끝나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비디오 게임 하자.)
▶ put (something) off: 미루다. 연기하다.

낱말퀴즈



가로열쇠
(1)아무리 좋은 구경거리도 배가 부른 뒤라야 볼 맛이 난다는 말. 금강산도 ~ (3)첩첩이 있는 여러 산들의 능선이 겹쳐서 마치 주름이 진 듯이 보이는 것. 산 정상에 오르자 ~이 한눈에 들어왔다. □산□□ (5)석회암 지대에서 스며드는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한 용식작용으로 지하에 생긴 동굴 (7)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함. 또는 그런 현상. 사람이나 물건이 갑자기 사라져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됨 (9)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AI(Artificial Intelligence) (11)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과정. ~밖에 길이 없어 ~로 가니/그 임은 나를 찾아 길 떠나셨네(황진이) (12)그냥 내버려둠. 개문 상태로 ~되어 있는 빈집 (13)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샘. 독특한 맛을 내거나 치료의 효과가 있다 (14)양복을 지을 때에 완전히 짓기 전에 듬성듬성하게 대강 꿰매어 맞춤 (15)한번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오기 어려운 길 (16)발목 부근에 안팎으로 둥글게 나온 뼈. 복사뼈 (19)벗겨 놓은 벼의 껍질 (21)아주 많은 액수의 돈 (23)천지의 조화를 주재하는 온갖 신령. 비나이다 ~께 비나이다 (24)대문의 좌우로 죽 벌여 있는 종의 방. 도망

세로열쇠
1)음식을 먹은 뒤에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는 증상 (2)위험해질 수 있는 일에 대해 미리 경고하여 주는 주의나 충고. ~을 울리다 (3)날이 밝아 올 무렵의 동쪽 (4)연극, 영화, 소설 따위에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 (6)자동차가 U자 모양으로 돌아 방향을 바꿈 (8)발 뒤쪽의 불룩하고 둥그스름한 부분 (9)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팔고 빠졌다는 물 (10)조선 시대에, 능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종구품 벼슬 (12)추위를 막기 위하여 입는 옷 (13)뺨과 관자놀이 사이에 튀어나온 뼈 (14)길가를 따라 설치해 놓은 등 (17)어머니의 짝. ~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18)살이 쪄서 몸이 뚱뚱함 (20)양편 팔 밑의 오목한 곳 (21)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 ~을 쓰다 (22)부정한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문에 건너질러 매는 줄. 아이를 낳았을 때, 장 담글 때, 잡병을 쫓고자 할 때, 신성 영역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4		3		7	1		6	
		1			8			9
	2					3		
1	4				7			2
	3	9				4	8	6
5		2			4		9	7
	1	6	7	8	3	9	5	
			5	9	2			
3	5	7		1	9	6		8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4	9	3	2	7	1	8	6	5
6	7	1	3	5	8	2	4	9
8	2	5	9	4	6	3	7	1
1	4	8	6	9	7	5	3	2
7	3	9	1	2	5	4	8	6
5	6	2	8	3	4	1	9	7
2	1	6	7	8	3	9	5	4
9	8	4	5	6	2	7	1	3
3	5	7	4	1	9	6	2	8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 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 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 (카드 뒷면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애틀랜타

구인

일본식당 구인

*히바찌 쉐프 0명
*스시 쉐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
(걸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리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안내광고 문의 (213)368－2532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LIBERTY BANKCARD Liberty worldpay www.worldpay.com

세계 1위 월드페이 공식 한인 파트너사

대표 사라 류 박사 인사드립니다
(경영학& 영업학 박사, 하바드 경영, 정치, 교육대학원 Alumni)
https://wikitia.com/wiki/Dr._Sarah_Sun_Liew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Worldpay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회사인 Liberty Bankcard(MPS)는
여러분의 기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혜택

- 29년 카드 프로세싱 업계 경력
- 가장 저렴한 수수료
- 최신형 기계 무료제공 가능
- NPC, Vantiv, Worldpay 등 세계 1위 기업과의 협력
- 1:1 맞춤 고객 서비스 및 컨설팅

문의 (424)332-3779 미전지역가능

info@libertybankcard.net libertybankcard.net

Liberty Bankcard (MPS) is a registered Independent Sales Organization/MSP of Worldpay ISO and Ecommerce, LLC, a registered ISO of Fifth Third Bank, N.A., Cincinnati, OH, USA.

Leisure World Seal Beach, 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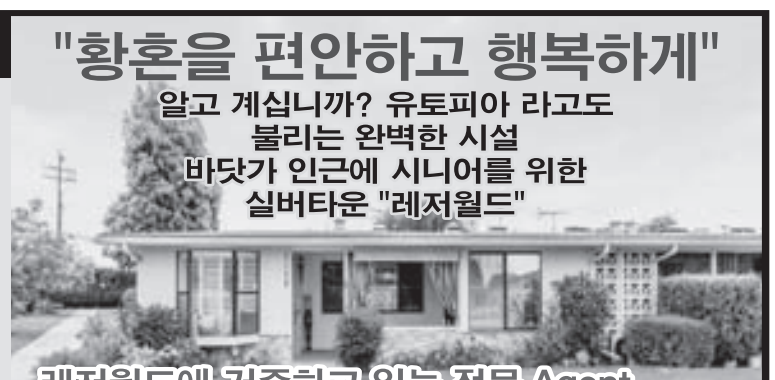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lly.com

지긋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십시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605-4890 · (281)501-2623

교통사고 치료 전문

MERCY CHIROPRACTIC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좌골 신경통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관절 클리닉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n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